

나무아카데미

월간 무료 국어 자료



- 본 콘텐츠는 무료로 배포되는 국어 월간 학습 자료입니다. 학원에서의 사용을 불허합니다.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매달 1일에 업로드가 되어 30일까지 배포가 됩니다. 과월호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공부하다가 국어에서 모르는 점은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무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1 3모 대비 실전 모의고사 4~5등급용 1회

제1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니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
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
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잼’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
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나)

새벽 시내버스는
㉣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애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관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변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컥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애꽃」

(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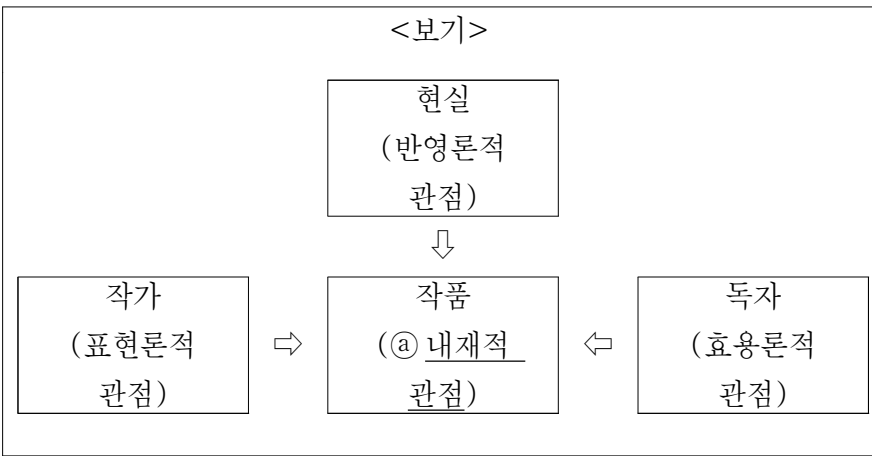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김수영, 「풀」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화자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시적 대상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서는 시상이 전환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다)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나)와 (다)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나)와 (다)에서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 (가)~(다)를 <보기>의 ㉠의 입장에서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희미한 십오축 전등'으로 보아 화자가 가난한 처지임을 알 수 있다.
- ② (나): '면회마저 금지된'에서 당대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다.
- ③ (나):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성에꽃'이라는 자연물로 형상화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다): '풀'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풀'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다): '동풍'은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풀'에게 생명의 단비를 뿌려 주는 고마운 존재로 볼 수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그리운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 ② ㉡: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처지에 대한 위로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 ④ ㉣: 일상적인 소재를 연상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 처절하게 고통받는 민중의 희생적인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 (나)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 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걸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① (나)와 <보기>는 각각 '차가운 아름다움'과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과 같은 역설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나)의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는' 모습은 <보기>의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 ③ (나)의 '엄동 혹한'은 서민들을, <보기>의 '함박눈'은 소외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고통과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④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나)와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5. (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 영역

고 3

- ①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대비되는 시어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반복과 대구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6~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민주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공공 문제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활발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견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이고, 언론은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언론 활동, 즉 보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언론 활동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세력의 힘의 관계를 반영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힘의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에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의 정당성도 낮아지게 된다.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가 선별된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되는 한, 여론은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제로서 작용하게 되고, 동시에 정부 정책의 효과도 여론에 반영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또, 공공 문제에 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사회 질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언론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 제도에서 집권 여당은 정책과 정책 결정에 관한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소수 유권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편중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지지를 계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정략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려 한다기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책을 만듦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발표되는 정책의 진실성 여부와 그 적절성에 대한 탐사와 비판을 통하여 정부를 견제한다. 언론은 또 공직자들의 특정 이해 집단과의 담합 등 비리를 감시함으로써 최대의 공익을 실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언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도 즉시 알려 줌으로

써 국민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의 환경 감시 역할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천재 지변, 전쟁 등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리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자유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이 국민에 의해 인정받아야 하므로, 정치적 의견과 의지의 형성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신적인 상호 교류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책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언론은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나 사회적 사건을 보도하고 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자살 문제가 10대 사망 원인 중 9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고, 자살률도 10만 명당 10.6명에서 24.0명으로 증가했다. 자살이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과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장년층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개인이 왜 자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무엇보다 미디어가 자살을 사회에 전염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미디어 사회에 살고 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살 문제와 자살 현상 역시 미디어를 통해 접한다. 언론은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그러한 보도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나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장년들과 노인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방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광범위한, 그리고 무분별한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copypat suicide)’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다. 1774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되자 이탈리아, 라이프치히, 코펜하겐 등지에서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 소설의 판매를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 자살의 전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금세기에 들어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자살의 전염성을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라고 부르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묘사되는 자살에 대한 기사들과 소설 속의 가상의 자살 묘사들이 일반인들, 특히 잠재적인 자살 시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제안들이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뿐 아니라 영국, 호주와 일본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미디어를 통한 자살 보도가 후속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연구 결과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후속 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 외의 사람에 대한 자살 보도보다 14.3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TV보다는 신문에서의 자살 보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문 기사는 TV 기사와 달리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자살한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나 자살의 원인 추측, 가족 인터뷰 등의 세부 자료를 싣고 있어 독자에게 자살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주된 역할은 독자와 시청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가이다. 자살은 전염이 되며, 미디어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아직 삶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인지한 ‘자살’을 근거로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장년층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자살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언론 보도가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나)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 ② (가)는 언론의 역할과 필요성을, (나)는 언론이 역할을 수행할 때의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정부, 언론, 국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언론의 파급력을 강조하고 있다.

7. (가)의 글쓴이의 견해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의 효과가 다시 여론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② 정책 수행에 있어 정보가 완전히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
- ③ 언론은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④ 언론은 비리를 감시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언론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 정책에 수정을 제기해야 한다.

8. <보기>가 (가)를 쓰기 위해 처음 작성한 개요라고 할 때, ㉠~㉢에 대한 내용 생성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처음 :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
2. 중간 : 언론의 사회적 역할
 - (1) 정부 정책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
 - (2)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
 - (3) 환경 감시 ㉣
3. 끝 : 요약 및 정리 ㉤

- ① ㉠ : 사회와 국민의 입장에서 언론 활동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개괄적으로 살펴서 화제를 제시한다.
- ② ㉡ : 제시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때 정부와 국민 양쪽에 다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부각시킨다.
- ③ ㉢ :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상황을 대비하여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 :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환경 감시’ 기능의 의미 범주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한다.
- ⑤ ㉤ : 당위적 견제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9. <보기>는 글쓴이가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서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보기>

- 예상 독자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 서술 방법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든다. ①
 -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사실성을 높인다. ②
 -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③
- 의도
 - 언론 보도의 결과로 생겨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④
 - 언론인들이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⑤

10. (나)와 다음 표를 토대로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표 1> 나이와 성별에 따른 자살 및 보도 비율

국어 영역

고 3

		자살 보도 비율 (%)	자살 통계치(%)
나이	10대	21.0	4.5
	20대	20.1	13.5
	30대	18.2	21.4
	40대	18.0	25.1
	50대	11.8	14.4
	60대 이상	10.9	21.1
성별	남성	61.1	71.8
	여성	38.9	28.2

<표 2> 기사를 통한 자살자 신원 파악 가능성

신원 공개 정도	빈도(%)
전면 공개	53.7
주위 사람 인식 가능	35.2
주위 사람도 인식 불가능	11.1

<표 3> 자살 사건 보도의 주요 내용 실태

	언급	언급 없음
예방 정보	0.1	99.9
전문가 의견	0.5	99.5
자살 의 대안 제시	0.0	100.0
유족 등의 반응	3.9	96.1

<표 4> 기사에 언급된 자살 원인의 수

	빈도(%)
1개	92.3
2개	7.5
3개	0.1
4개	0.1

- ① 자살의 원인 추측, 유족의 반응은 다루면서도 자살 예방에 필요한 정보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②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 20대의 자살에 대한 보도가 많은 것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 ③ 자살자의 신원을 전면 공개한 경우가 50%가 넘음을 들어, 무분별한 자살 보도는 후속 자살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④ 실제 자살 비율보다 남성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는 것이, 남성들의 무분별한 모방 자살을 불러올 수 있음을 들어 비판한다.
- ⑤ 자살의 원인과 동기는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 보도에서는 매우 단순화하거나 단정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밝힌다.

11. ㉠을 염두에 둘 때, <보기>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살

보도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924년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유명 록그룹의 리더 싱어가 권총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미디어 보도가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연구했는데, 그 결과 그의 죽음이 호주 청소년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그 이유가 그의 부인이 죽음을 낭만적으로 덧칠하지 않고 약물 문제와 수차례의 자살 실패 등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 ① 자살 행위를 미화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 ② 유명 인사에 대한 자살 보도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③ 자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밝혀 준다.
- ④ 자살한 사람의 사망 사실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 ⑤ 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라남도 남원에 양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아직 장가들지 못한 채 만복사라는 절간 구석방 하나를 얻어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다. 한번은 외로움에 지쳐 신세 타령의 시 한 수를 읊고 나자 공중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되

"그대가 참말로 고운 배필을 만나고자 할진대 그 무엇이 어려울 것 있으랴!"

하니 양생은 크게 기뻐하여 마지 않았다. 이튿날 양생은 저녁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려 법당에 들어가 자기 소매 속에 깊숙이 간직해 가지고 갔던 저포(樗蒲)를 내어, 부처님께 사뢰기를,

"오늘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저포놀이를 하고자 하나이다. 만약 소생이 지면 법연(法筵)을 베풀어 부처님께 보답해야 할 것이오며, 만약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반드시 미녀를 소생의 배필로 점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고 축원한 다음, 곧 저포를 던졌더니 양생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는 곧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인연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소생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후에 불탁(佛卓) 밑에 숨어서 동정을 살폈다.

이윽고 꽃같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나이는 열 대여섯 정도인 듯하고 검은 머리에다 깨끗한 단장이 마치 채운을 타고 내려온 선녀 같아서 그 고운 모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웠다. 흰 손으로 기름을 등잔에 따라 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쬐운 뒤에 세 번 절하고 꿇어 엎드려 슬피 탄식하며,

"인생이 박명(薄明)하기 어찌 이와 같으리까?"

하고 품 속에 간직하였던 축원문을 부처님께 바친 다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불탁 밑에 숨어 엿보고 있던 양생은 그 아름다움에 정을 가누기가 어려워, 뛰어나와 일러 가로되,

"남자가 지금 읽은 글월은 대체 무슨 내용의 것이오니까?"

"소녀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옵니다. 왜구가 침입해 와 건물을 파괴하고 노략질해 가자 버드나무와같이 가냘픈 소녀는 먼 길 피난하기가 여의치 못하여 벽지에 옮겨 초야에 묻혀 살기 속절없이 삼 년이라. 달 밝은 밤이면 그윽한 골짜기에 평생 박명(薄命)에 한숨겨워 외로움을 슬피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니 서러운 간장 다 녹이고 혼백마저 흩어졌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무쪼록 꽃다운 배필을 점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략>

"저도 어릴 때 글을 읽어 예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너무 오랫동안 들관 다복숙 속에 묻혀서 버림받은 몸이 되고 보니 사랑의 정회(情懷) 한 번 나매 건잡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절로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불을 피우면서 한평생의 박명을 자탄하였더니, 뜻밖에도 삼세의 인연을 만나매 당신의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으나, 애달프게도 이승에서의 삼 일 간의 시간이 다하였기에 한시바삐 저승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이제 한번 하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회를 무어라 말씀드리겠나이까?"

남자는 소리를 내어 울더니 영혼은 문 밖으로 나갔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슬픈 소리만 은은히 들려왔다. 양생은 그 남자가 귀신이었음을 알고는 슬픔을 느끼어 울었다.

이튿날 양생은 주육을 갖추어 개녕동 옛 자취를 찾으니, 과연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제전을 차려 슬피 울면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제문을 지어 읽었다.

하루는 공중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의 은덕으로 저는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幽明)의 한계는 더욱더 멀어졌사오나, 당신의 두터운 은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저와 같이 속세의 누를 초탈하소서."

양생은 그 뒤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하나,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12. 이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사관(生死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은 산 사람 곁에 영원히 머물게 된다.
- ②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다른 세상에서 다시 환생하게 된다.
- ③ 사람이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으로 분리되어 사라져 버린다.
- ④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 원혼이 되어 영원히 구천을 떠돌게 된다.
- 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 행복을 누리거나 지옥에 가 벌을 받게 된다.

13. 이 글의 주인공 '양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했다.
- ② 남자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 ③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을 했다.
- ④ 남자와 해로하는 데 끝내 실패했다.
- ⑤ 시나 제문을 지을 수 있는 교양을 갖추었다.

14. 이 글 전체 사건의 줄거리와 한자성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 ▶ 양생의 처지와 소망
양생이 절간에서 외롭게 지냄. ① 혈혈단신(孑孓單身)
양생이 배필을 점지해 주기를 소망하며 부처와 저포놀이를 함.
- ▶ 남자의 처지와 소망
남자가 왜구에 의해 희생당함. ② 미인박명(美人薄命)
남자의 혼령이 부처에게 배필 점지를 축원함.
- ▶ 양생과 남자의 만남
양생이 남자의 혼백과 꿈 같은 시간을 보냄. ③ 일장춘몽(一場春夢)
- ▶ 행복한 생활의 파국
양생과 남자의 인연이 다함. ④ 흥진비래(興盡悲來)
- ▶ 남자가 사라짐.
양생이 재(齋)를 지내 남자의 혼령을 위로함. ⑤ 결초보은(結草報恩)

15. <보기>는 양생의 제문을 대신 써 본 것이다. ㉠~㉥ 중,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기>

모던 모일 모시에 양생은 남자에게 조출한 음식을 차려 놓고 고하오. ㉠ 남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소. ㉡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니 더욱 애통하오. 황량한 다복숙에 몸을 의탁한 채 쓸쓸히 보낸 날이 몇 날이었으며, 달 밝은 밤이면 외로워 한숨지은 날이 몇 날이었겠소. ㉢ 나 역시 외로움에 지쳐 신세를 한탄하며 지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소. ㉣ 그러나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 그대와의 인연은 이제 다하게 되었구려. 내 눈에는 지금도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른거리고, 내 귓가에는 명량한 그대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오. 몸은 비록 흩어졌으나 영혼만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믿소. ㉤ 그대가 다시 환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구려. 저승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명복을 비오.

- ① ㉠ ② ㉡ ③ ㉢ ④ ㉣ ⑤ ㉤

국어 영역

고 3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가 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였는지 백화는 꼼짝 못 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백화가 말했다.

“어께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택이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과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소?”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뒤통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우?”

㉢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찢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쳇,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뇨, 백화란 여자 말예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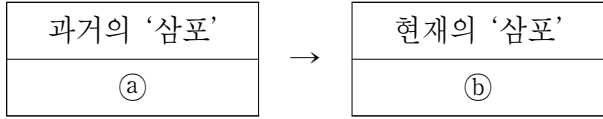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력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서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뒤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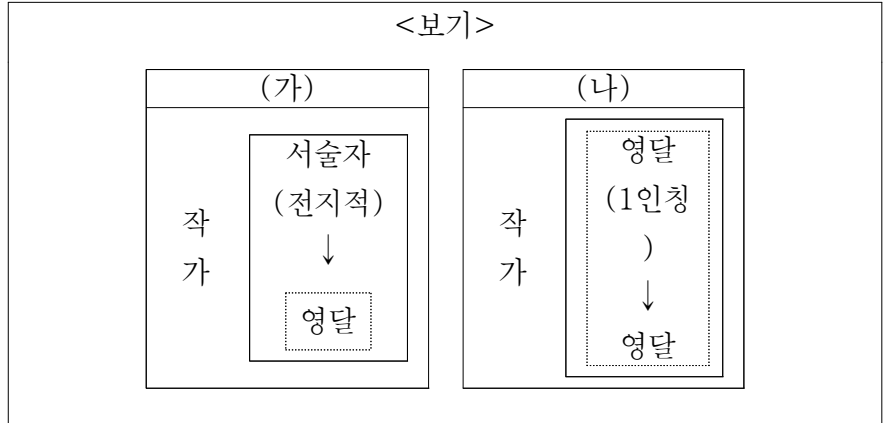
16.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중재자에 의해 해소되고 있다.
 - ②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④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17. 밑줄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을 통해 영달이 떠돌이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 ③ ㉢을 통해 백화가 영달과 정 씨와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백화가 영달과 정 씨에게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변해버린 삼포로 인해 정 씨 또한 고향을 잃은 뜨내기 신세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정 씨의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안식처
- ② ㉠ : 정 씨가 꿈꾸는 이상향으로, 감자 농사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간
- ③ ㉡ : 떠돌이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 ④ ㉡ : 도자를 끄는 영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기회의 공간
- ⑤ ㉡ : 산업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공간

19. <보기>의 (가) 시점으로 서술된 ㉠을 (나) 시점으로 바꾸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워 가쁜 느낌이 들었고,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다.
- ②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가쁘히 업었다. 그의 등이 불편해 보였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는 눈치였다.
- ③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어린애처럼 가벼운지 나를 가쁘히 업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했다.
- ④ 사내는 대꾸하지 않았고, 여자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는지 가쁘히 업었다. 사내의 등은 불편해보이지 않았다.
- ⑤ 영달이 대꾸가 없음은 당연하다. 백화가 가벼운 것은 쇠약해진 탓이거늘 어찌 가쁘하게 업지 않을 수 있으랴.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르네상스 이전 노트르담 대성당을 중심으로 전개된 음악인 노트르담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페로탱의 곡은 오늘날 사람에게서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음악처럼 들릴 것이다. 이 위화감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는 화성 감각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화성이란 도미솔을 말한다. 하지만 중세에는 도미솔이 불협화음이었다. 즉, ‘미(3도)’가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시험 삼아 피아노로 ‘도미솔’과 ‘도솔’을 비교해 보면, 부드러운 전자

국어 영역

고 3

의 울림에 비해, 후자는 부드러움이 빠진 어딘가 모가 나 있는 공허한 것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중세 사람들에게 있어 ‘도술’의 울림은 제대로 된 것이었다. 중세에서 추구하는 울림은 금욕적이며 준엄하고 위협적인 울림이었다. 음악은 감미로운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음악이 사랑받은 것은 당시 사람들의 독특한 음악관에 기인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세의 음악 미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 먼저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중세의 음악은 결코 ‘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중세에 널리 읽힌 보이티우스의 『음악망요』 이론에서는 음악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세 가지 유형의 음악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음악은 ㉔ 뮤지카 문다나이다. 이는 ‘천체의 음악’ 또는 ‘우주의 음악’을 뜻한다. 이것은 천체나 지구, 즉 대우주가 만들어 내는 음악으로, 대우주의 조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뮤지카 문다나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악이다. 그 다음 단계인 ㉕ 뮤지카 후미나는 ‘인간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 즉 소우주를 다루는 음악이다. 이는 우주의 질서에 의해 영향 받는 육체와 영혼 및 그들 각 부분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음악에 의한 이 조율 작용이 이상해지면 병이 걸리거나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뮤지카 문다나와 뮤지카 후미나는 모두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악이다. 다음으로는 가장 낮은 단계인 ㉖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가 있다. 이는 ‘악기의 음악’을 의미하는데, 음향학적 원칙들의 질서 있는 적용에 의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포함한 모든 악기가 만들어 내는,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음악적 음정의 숫자 비율로 질서의 원리를 ㉗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중세 사람들은 음악을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인 질서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일종의 과학에 가까운 사고이다. 이런 중세의 음악관으로 볼 때, 페로탱의 곡에는 신의 나라의 질서를 소리로 모방한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이 인간이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페로탱의 곡이 전부 8분의 6박자로 되어 있는 것 역시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 당시의 음악은 오로지 삼위 일체를 표현하는 3박자 계열로 적혀졌다.

음악의 배후에 초월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은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의 음악과도 관련이 있다. 바흐가 선호한 숫자의 상징, 쇤베르크의 12음 기법, 혹은 바르톡의 황금 분할 등, 이런 서양 예술 음악에는 특유의 수학적 사고가 있다. 음악은 반드시 소리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특이한 생각이야말로 중세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 예술 음악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 윗글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르네상스 이전의 음악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듣기에 위화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② 중세 사람들에게 음악은 어떤 수단이였을까?
- ③ 뮤지카 문다나와 뮤지카 후미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 ④ 중세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초월적 질서를 탐구하려던 이유는 무엇일까?
- ⑤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중세의 음악관은 무엇일까?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쇤베르크의 생각을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2음 기법을 만들어 낸 독일의 표현주의 작곡가 쇤베르크는 소설가 토마스만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며 매우 복잡하게 짜여진 음악을 헌정했는데, 이때 쇤베르크는 이 작품 속의 음악은 거의 연주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 ① 음악은 종교적 이상향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간을 이끌어야 한다.
- ② 작곡가는 음악을 통해 연주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음악은 인간 정신의 고차원적인 부분을 표현하여 감상자의 감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④ 음악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감상자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음악은 귀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악보를 통해 순수한 이성적인 영역에서 이해하고 관조할 수 있다.

22. 위 글을 읽고 <보기>의 ㉑~㉔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음악으로부터 수학적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 낸 학자는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이다. 피타고라스는 ㉑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는데,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분야의 하나가 곧 음악이었다. 피타고라스는 ㉒ 하프를 직접 질서 있게 연주하면서 소리를 분석해 본 결과, ㉓ 하프에서 나오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하프 현의 길이나 현에 미치는 힘은 간단한 정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즉, ㉔ 한 옥타브는 1:2의 비, 5도음은 2:3의 비를 이룬다는 것 등인데, 고대 그리스의 5도음은 2:3의 비를 이룬다는 것 등인데, ㉕ 고대 그리스의 5도 음률에 기초한 피타고라스 음률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음정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이며, 음향악의 출발이기도 하다.

- ① ㉑은 음악의 배후에 있는 초월적 질서와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보이티우스는 ㉒을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라고 보았을 거야.
- ③ ㉓은 ㉑이 질서 있게 적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고 볼 수 있겠군.

- ④ ㉔에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 질서를 탐구하는 과학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군.
- ⑤ ㉔을 통해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수단으로서 음악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23. 위 글과 <보기>를 통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이후의 르네상스는 전시대만큼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즐기고자 하는 시대이다. 르네상스 시기에 활약한 네덜란드 작곡가 텅크토리스는 음악 이론집 『음악 용어의 정의』에서 ‘하모니’를 ‘아름다운 울림’이라 정의한다. 그는 또한 음악을 ‘뮤지카 아르모니카(인간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음악)’, ‘뮤지카 오르가니카(공기의 흐름에 의해 소리나는 악기에 의한 음악)’, ‘뮤지카 리트미카(닿는 것에 의해 소리를 내는 악기에 의한 음악)’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 ①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를 반영한다.
- ② 중세와 달리 르네상스 시기에는 음향학적 원칙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 ③ 이전 시대의 음악이 종교 중심적이었음에 비해,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은 인간 중심적이다.
- ④ 르네상스 시기에는 음악을 감각적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
- ⑤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음악을 수적 질서가 아닌 감각적 대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24. ㉔ 대신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부각(浮刻)하는
- ② 제출(提出)하는
- ③ 부여(附與)하는
- ④ 인지(認知)하는
- ⑤ 표출(表出)하는

25.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은 ㉔나 ㉔보다 상위 단계에 위치해 있다.
- ② ㉔가 인간의 차원으로 적용된 것이 ㉔이다.
- ③ ㉔, ㉔는 ㉔와 달리 실제로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다.
- ④ ㉔는 철학적 원리를, ㉔는 인간의 감정을, ㉔는 수학적 세계관을 표출하고자 했다.
- ⑤ ㉔는 ㉔, ㉔ 속에 내재해 있는 질서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경 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깊은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해양심층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㉔ 같은 무기염류(미네랄)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바닷물은 수심 200m를 기준으로 그 위의 바닷물은 ㉔ 표층수로, 그 아래의 물은 ㉔ 해양심층수로 구분된다. 그 이유는 해양심층수가 표층수보다 온도는 10~20℃ 낮고,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밀도가 높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닷속 150~200m 이하로 내려가면 도달하는 태양광량이 수면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전체 태양광 중 최소 1% 이상이 도달하는 층을 유광층(有光層)이라고 하는데, 이 층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플랑크톤이 살 수 있는 경계층이다. 식물플랑크톤이 없으면 이를 먹고 사는 미생물도 살 수 없어 먹이사슬이 형성되지 않는다. 결국 유광층 아래에는 이 층에서 미처 분해되지 않고 가라앉은 유기물을 먹고 사는 적은 수의 미생물만 존재한다. 그런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세균 같은 미생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는 자연히 청정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런데 해양심층수는 경도가 높아 그냥 먹을 경우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염도를 낮추는 탈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역삼투법이 사용된다. 물은 투과시키지만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이나 분자는 투과시키지 않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담수* 해양심층수를 각각 넣으면, 담수의 물 분자가 농도가 높은 심층수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 작용이 일어난다. 이때 삼투압보다 10~30배 높은 압력을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가하면 심층수의 물 분자가 담수 쪽으로 이동해 해양심층수에 녹아 있는 각종 무기염류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출한 무기염류는 경도를 맞추기 위해 선택적으로 다시 첨가된다. 그 뒤에 자외선 살균을 거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

물맛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도인데, 경도란 물속에 포함된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보통 경도가 20 이상일 경우에 ‘센물’, 20 이하면 ‘단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으면 씹쓸하거나 텁텁한 맛이 커지고 경도가 낮으면 담백한 맛이 난다. 일반적으로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많으면 쓴맛이 조금 더 강해진다.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경도 범위는 10~100 정도인데, 이보다 높은 것을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고혈압 예방과 항알레르기 작용 같은 기능성 효과를 위해서이다. 이처럼 해양심층수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생명체에 신진대사에 중요한 무기염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차세대 식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담수: 염분이 없는 물.

26.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해양심층수는 무기염류와 세균 같은 미생물이 적어서 차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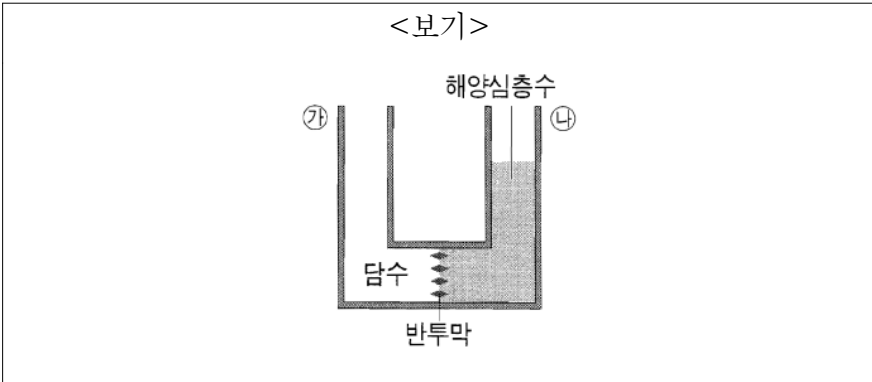
고 3

국어 영역

식수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 ② 해양심층수는 경도가 높아 그대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경도란 물속에 포함된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많으면 쓴맛이 조금 더 강해진다.
- ④ 경도로 해양심층수의 물맛을 조정할 수도 있고 고혈압 예방이나 항알레르기 작용 같은 기능이 있게 만들 수도 있다.
- ⑤ 해양심층수는 역삼투압법을 이용하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진다.

27. '탈염 과정'을 <보기>처럼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보다 나에 있는 물의 농도가 높다.
- ② 자연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보다 나에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
- ③ 나에 있는 물을 그대로 마실 경우 복통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 ④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게 하면 나에 있는 각종 무기염류가 가로 이동한다.
- ⑤ 나에 삼투압보다 20배 정도 높은 압력을 가하면 나보다 가에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진다.

28. <보기>는 해양심층수를 가공한 제품의 성분 표시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주요 무기물질

칼슘(Ca)	4~8
마그네슘(Mg)	10~12
칼륨(K)	5~10
나트륨(Na)	6~12
경도	50~70

- ① 제품에 들어 있는 물은 센물에 속하겠군.
- ② 제품에 들어 있는 물은 약한 쓴맛이 감들겠군.
- ③ 제품에 들어 있는 물에 칼슘염을 더 첨가하면 경도가 더 높아

지겠군.

- ④ 제품에 들어 있는 물은 맛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겠군.
- ⑤ 제품에 들어 있는 물에 지나치게 기능성을 강화하면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겠군.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보다 온도가 10~20℃ 낮다.
- ② ㉡은 ㉠보다 무기염류는 많고 세균은 적다.
- ③ ㉠에서는 ㉡에서와 달리 먹이사슬이 형성되지 않는다.
- ④ ㉡은 ㉠과 달리 유광층에 존재한다.
- ⑤ ㉠과 ㉡은 밀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는다.

30. ㉠과 ㉡의 의미가 유사한 것은?

- ① 철수는 군인 같은 군인이다.
- ② 성규는 바보 같은 것만 골라서 한다.
- ③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 ④ 윤아는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갖고 있다.
- ⑤ 배를 탈 때는 반드시 구멍조끼 같은 것을 챙겨야 한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홍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 보소
 시집간 지 석 달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사* 시어미라.
 고자질에 시누의와 엄숙하기 만동서여.
 요약(妖惡)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녀 노복(男女奴僕) 들며나며 흙구덕에
 남편(男便)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에라.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살이 못 하겠네 간숫병을 기울이며
 치마쓰고 내닫기와 붓짐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僧)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長竹)이 벗이 되고 들구경하여 볼까
 문복(問卜)하기 소일이라

(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粉)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앞밭에는 당추(唐椒) 심고
 고추 당추 맵다 해도
 동글동글 수박 식기(食器)
 도리도리 도리 소반(小盤)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아버니 호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귀먹어서 삼년이요
 말 못해서 삼년이요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시집살이 어땠데까?
 시집살이 개집살이.
 뒷밭에는 고추 심어,
 시집살이 더 맵더라.
 밥 담기도 어렵더라.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십 리(十里) 방아 짱어다가,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어머니 꾸중새요,
 시누 하나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세.
 눈 어두워 삼년이요
 석 삼년을 살고 나니,
 호박꽃이 다 되었네.

(중략)

울었던가 말았던가
 그것도 소(沼)이라고
 쌍쌍이 때 들어오네.

베개 머리 소(沼) 이겼네.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다)

쇠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벽 바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모 석은 등걸에
 휘초리 나니긋치 양살피신* 쇠아바님, 벗 뵈 췌똥긋치 되종고신*
 쇠어마님, 삼 년(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부리긋치 췌족흔신 쇠
 누의님, 당(唐)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긋치 식노란 윗긋 긋튼 피
 똥 누는 아들 혀나 두고,
 건 밧티 메긋긋튼 며느리를 어디를 낮바 혀시논고.

*계엄할사: 마음이 컴컴하고 욕심이 많기도.
 *암상할사: 셈하는 마음이 많다.
 *십벌지목(十伐之木):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여럿의 등쌀에 기어코 마음이 그렇게 쓸렸다는 뜻.
 *양살피신: 매서운
 *되종고신: 말라빠진

31. (가)~(다)를 묶어 교지에 실으려고 할 때, 표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인들의 시집살이, 이렇게 어려웠다.
 - ② 시집살이 어렵다지만 여자 하기 나름이었다.
 - ③ 예나 지금이나 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었다.
 - ④ 여자들의 시집살이 변천사, 한눈에 보여 준다.
 - ⑤ 시집살이 이렇게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32. (가)~(다)의 세 여인이 모여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작품에 드러난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3점]
- ① (가)의 여인 : 정말 시집살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시집 식구들 누구 하나 제 편 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해도 믿었던 남편마저 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 ② (나)의 여인 :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할 일은 또 왜 이리 많은 것입니까? 시집 와서부터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아요.
 - ③ (다)의 여인 : 일이야 많아도 하면 되니까 참을 수 있어요. 시집 식구들은 아무 죄없는 며느리를 왜 이리 미워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 ④ (가)의 여인 :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니까? 나는 죽을 생각도 해 보고 집을 도망치기도 해 보았는 걸요. 집에 있기도 싫고 일 하기도 싫어요.
 - ⑤ (나)의 여인 : 저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저것들을 왜 낳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이 되기는커녕 해야 할 일만 더 만들고 있어요.

33. <보기>에서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A.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다.
 B. 서술자와 대상 인물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C.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D. 대상 인물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
 E. 독자에게 서술자의 말을 믿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 ① A, B, D ② A, B, E ③ A, C, D
- ④ B, C, D ⑤ B, D, E

34. (나)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유사 어구나 동일 어구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살려 내고 있다.
 - ② 적절한 비유로 시집 식구들의 특성을 집약시켜 보여 주고 있다.
 - ③ 여인들의 대화체를 통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④ 감정의 절제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암시하고 있다.

국어 영역

고 3

⑤ 숫자의 나열과 대조적 표현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35~37] 다음은 체험 활동을 위한 사전 답사 보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주말에 저는 남산에 있는 ‘재미로’와 ‘재미랑’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동아리 시간에 그곳으로 우리 만화 동아리 회원 1, 2학년 30명이 체험 활동을 가는 것 알고 있지요? (대답을 듣고) 예, 그래서 동아리 회장인 저랑 총무가 함께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파악하고 체험 활동의 동선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다음 주에 체험 활동을 가서 길을 잃거나 좋은 볼거리를 놓치고 온다면 아쉬울 테니까요. 또한 다음 주 체험 일정에 넣은 그곳의 행사 계획 등도 안내해 드릴 테니 미리 자료도 찾아보고 잘 준비해서 체험 활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미로’, ‘재미랑’에 가 본 적 있는 친구가 있나요? (대답을 듣고) 이미 가 본 친구도 두 명이나 있네요. 언제 가 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한 명은 이 년 전에, 또 한 명은 작년에 다녀왔군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다시 가 보면 많이 변화된 모습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최근 일이 년 사이에 지역 주민의 참여로 거리가 많이 정비되고 알찬 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 보았는데요, 만화에 관심이 있고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가면 상상 공원이 보이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재미로’가 시작됩니다. ‘재미로’란 서울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로 애니 타운이 조성된 남산 일대를 잇는 만화의 거리 이름입니다. 제가 직접 가 보니 인위적인 대형 거리 조성 사업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의 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작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 문화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재미로’ 안에는 기존 정류장을 활용해서 조성된 거점 공간인 상상 공원, 만화 삼거리, 사연 우체국, 재미 운동장, 만화 언덕 등 5개의 만화 문화 정류장과 주변의 이색 가게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만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연출해 놓은 상상 공원도 예쁘고, 만화 콘텐츠 프레임으로 경관을 구성한 만화 삼거리도 흥미로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 만화 삼거리에는 우리 동아리에서 함께 감상하고 제작해 보았던 작품들도 많이 보이지요? 얼마 전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어서 우리가 동아리 시간에 만화 이어 그리기 활동을 했던 ○○작품도 보여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 옆에 위치한 사연 우체국은 시민의 일상 사연을 받아 만화가가 직접 만화로 표현한 벽면 갤러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더 걸어가면 만화 거리 중간 교차 지점을 만화 문화 공간으로 유도한 재미 운동장에는 만화 콘텐츠를 연계한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동아리 단체 사진을 재미있게 연출해서 찍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재미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자 시민들의 참여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재미

랑’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건물로, 특히 2층에는 다양한 시즌별 만화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다음 주에는 서울 풍경과 첨단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만화 전시가 기획되어 있다고 하니, 그동안 이론으로만 접했던 홀로그램 큐브나 영상물 등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모임 공간과 전문 자료실이 있어서 다양한 만화 예술 분야를 직접 체험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까지 이어진 옹벽면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만화언덕입니다. 한국 만화 100선 중 40개 만화 캐릭터의 콘텐츠 기부를 통하여 상징적인 공간을 만든 곳인데요, 옹벽면을 따라 작품들이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야간 조명이 켜져서 만화 캐릭터와 조명의 연출로 매우 예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갤러리 작품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찾아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는 ‘재미로’ 내 골목 사이사이에 있는 만화 골목들입니다. 주민과 상인들이 집과 건물 벽면을 내어 주고, 만화가들은 만화 이미지를 재능 기부하여 슬럼화된 공간을 꾸민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들렀던 슈퍼마켓 주인아주머니는 동네가 예뻐지니까 손님들도 늘었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우리 동아리의 체험 활동 시간까지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다시 찾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을 기록하는 등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을 이용해야 하니 교통 카드도 잊지 마세요.

35. [A]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답사 장소에 대한 청중의 사전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 ② 답사 장소의 최근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답사 장소 선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청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④ 자신이 맡은 직책과 역할을 언급하며 본인의 답사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⑤ 답사 보고를 듣고 난 청자가 체험 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하고 있다.

36. 다음은 동아리 회장이 답사 보고를 하기 전에 사전 계획한 내용이다.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재미로’의 출발점에서부터 걸어가는 동선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지.
- ②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만화에 관한 관심과 흥미가 높으니 이와 관련된 장소를 중심으로 보고해야겠어.

국어 영역

고 3

- ③ 답사에서 찍어 온 사진 중에서 동아리 시간에 함께 활동했던 작품을 보여 주면 동아리 회원들의 기억을 환기해서 흥미를 높일 수 있겠지.
- ④ 남산 아래의 명동과 남대문 일대, 남산의 한옥 마을 등 주변 명소도 살펴보고 왔는데, 이 내용은 동아리 답사와 상관없으니 넣지 않는 것이 좋겠어.
- ⑤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이러한 문화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음을 설명해서 우리 동아리 체험 활동을 위한 사전 답사의 목적과 의의를 강조해야겠어.

37. 답사의 주요 장소에 대한 동아리 회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상상 공원’은 그림자와 만화 콘텐츠를 이용한 연출이 좋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활용한 것인가요?
- ② ‘사연 우체국’은 시민의 사연을 받아서 만화로 제작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도 사연을 접수받나요? 저도 해 보고 싶은데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③ ‘재미 운동장’의 포토존에 연계된 만화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단체 사진을 좀 더 재미있게 찍으려면 그 작품과 관련된 소품을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 ④ ‘재미랑’의 2층에 다양한 만화 기획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답사 당일에는 어떤 전시가 예정되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 ⑤ ‘만화 언덕’에는 만화 캐릭터와 조명의 연출로 멋진 분위기가 기대되는데, 혹시 야간조명이 켜지는 시간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38~41] (가)는 학생회에서 진행한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장’이 작성한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0월에 열릴 체육 대회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 학교 체육 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열렸던 체육 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자 1: 작년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한데, 체육 대회의 종목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는 오전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단축 마라톤, 오후에는 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달리기 종목만 진행되니 학생들의 호응이나 만족도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A]

참여자 2: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단축 마라톤의 경우,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다 보니,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불평하며 참여하는 시늉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3: 다들 알겠지만 단축 마라톤은 학교에서 벗어나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보니 안전 문제도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옆에서 달리는 차량을 의식하여 제대로 달리는 것도 어려워 학생들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 대회 종목이 적고,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종목이 있으며, 안전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분석해 보면 결국 단축 마라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축 마라톤을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체육 대회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여자 1: 네, 그동안 단축 마라톤을 진행하다 보니 오전에 다른 종목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만약 단축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면 오전에 더 많고 다채로운 종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피구, 농구 등 종목이 다양화되면 그만큼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 2: 종목이 다양해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반 대항 단체 줄넘기 또는 단체 줄다리기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B]

참여자 3: 단축 마라톤 대신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하루 동안 반 대항 경기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반 대항 종목의 예선전을 체육 대회 전에 미리 하면 어떨까요?

참여자 1, 2: 네, 좋습니다.

학생회장: 네, 지금까지의 토의를 종합해 보면, 단축 마라톤을 이번 체육 대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

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 반 대항 종목은 진행 일정을 미리 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 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김○○입니다. 올해 10월에 교 내체육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는 전교생이 모두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 방안 마련 을 위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토의 참여자들은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가 달리기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오 전에 진행되는 단축 마라톤에는 체육 대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 들로부터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대회에서도 일 부 학생들은 걷다시피하며 반환점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되돌 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축 마라톤 코스가 교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언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관할 지역 경찰의 협조를 얻 어 진행하기는 했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생들이 경기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생회에서는 단축 마라톤 경기 를 폐지하고 대신 축구, 피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며, 대회의 취지에 맞게 단체 줄넘기나 단체 줄다리기와 같은 반 대 항 경기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모든 경기를 하루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를 하실 수 있으나, 이는 예선전은 체육대회 전 방과 후에 틈틈이 진행하고, 결승전만 당일에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저희의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㉔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 리면서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적으 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맺습니다. 끝까지 읽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 (가)에서 ‘학생회장’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 지 않은 것은?
- ① 토의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언급하며 토의 의제를 제시하였다.
 - ②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중간에 요약, 정리하며 토의를 진 행하였다.
 - ③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며 토의 방 향을 이끌었다.

- ④ 토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다음 논의를 예고하며 토의를 마무리하였다.
- ⑤ 토의 참여자의 진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의 결과의 활 용 방안을 언급하였다.

39.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참여자 2는 자신이 참여자 1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참여자 2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참여자 1 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③ [A]: 참여자 3은 참여자 1, 2와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이들의 의견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 ④ [B]: 참여자 2는 참여자 1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견해 를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B]: 참여자 3은 참여자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로 인해 일 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0. 다음은 (가)를 반영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회장’의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문단
- 교내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을 언급 하며 건의 목적을 제시해야겠어. ㉑
- 2문단
- 학생들이 교내 체육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내 체육 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해야겠어. ㉒
- 3문단
- 교내 체육 대회에서 진행 가능한 운동 종목을 소개하고 그 특 징을 설명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해 야겠어. ㉓
 - 건의 내용에 대해 학교 측에서 보일 수 있는 우려를 제시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㉔
- 4문단
-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때 교내 체육 대회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㉕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41. <보기>는 ‘학생회장’이 (나)를 작성한 후 찾은 자료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㉔를 보완하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은? [3점]

국어 영역

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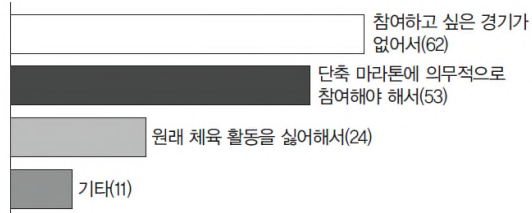
<보기>

(ㄱ) 설문 결과(설문 대상: 우리 학교 학생들 / 복수 응답)

㉠ 선호하는 경기 종목(단위: %)

축구	농구	줄다리기	피구	기타
68	54	72	35	21

㉡ 체육 대회에 불만족하는 이유(단위: %)



(ㄴ) 인터뷰 자료

“단체 경기는 개인 경기와 달리 혼자 힘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없으며,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 행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① (ㄱ)의 ㉠, ㉡와 (ㄴ)을 활용하여, 원래 체육 활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줄다리기는 선호하므로 반 대항 줄다리기를 신설하면 체육 대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ㄱ)의 ㉠과 (ㄴ)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단체 경기인 줄다리기를 진행하면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여 체육 대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ㄱ)의 ㉠과 ㉡를 활용하여, 대회의 종목이 다양화되면 학생들이 각자 좋아하는 종목에 참여할 수 있어 체육 대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ㄱ)의 ㉡를 활용하여, 단축 마라톤을 체육 대회 종목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ㄴ)을 활용하여, 반 대항 경기가 신설되면 반별 협동심을 고취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42~45] 다음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는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는 소리들로 가득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티셔츠나 가방 고르기 같은 사소한 것부터 진로 선택 같은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 또는 그에 대한 반응들도 다양하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대신 결정을 내리며 자신이 택한 것을 따르기를 종용하는 반응도 있고, 쉽게 선택하기 힘든 문제라며 공감, 응원하는 반응도 있다. 그런가 하면 결정을 미루거나 회

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과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다르며 최선의 결정은 고민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또 ‘최고의 결정은 결정의 순간에 달려 있다.’라는 말도 한다. 하지만 결정에 대한 만족은 결정의 순간보다 결정한 후에 자신의 결정이 반영되는 과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정 그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 때문에 결정했는지 목적은 잊어버리게 된다. 결정을 미루는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에게 결정을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자신의 중요한 선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결정을 회피하고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도 [㉢] 돌리게 되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사회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 ㉣ 전문가들은 개인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다른 걸 선택했다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는 것은 ㉤ 현대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증과 자기 노출에 익숙하여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항상 의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 관념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선택의 순간에 늘 망설이게 된다면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요인들을 ㉥ 제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선택지를 줄이자. 그러려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5만 원 이하의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상품평이 가장 많은 제품 중에서, 옷을 고를 때는 5개 이하의 매장을 둘러보고 그중에서 선택하겠다는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과 욕구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자. 그러려면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찾아야 한다. ㉦ 행복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결정의 순간에 타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만의 행복 기준이 없으면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기 어렵다.

셋째, 자신의 결정에 미련을 갖지 말자.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예방 주사를 맞은 듯이 생각하고 이번의 결정을 발판 삼아 다음에 더 좋은 결정을 내리면 된다.

끝으로 ㉨ 선택의 기로에서 곳곳하게 결정을 내린 투쟁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자. 그러면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빠른 결정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스스로 선택한 일은?’, ‘나에게 칭찬할 일은?’, ‘내일 결정할 일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면 자신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동시에 내일 할 결정을 예고해 주는 일과표가 되기 때문이다.

42. 밑글의 ㉠~㉣과 관련이 있는 자료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미국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진열대에는 6종류의 잼을, 다른 진열대에는 24종류의 잼을 진열한 후 고객에게 1달러 할인권을 주고 시식을 하도록 했다. 그런데 6종류의 잼이 있던 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30%가 잼을 샀지만 24종류가 있던 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3% 정도밖에 사지 않았다.

(나) 독일의 언론인 올리버 예게스는 오늘날 이삼십 대 젊은이를 분석하면서 '결정 장애 세대'라는 표현을 썼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달려 자기 결정을 남들이 추천하는 '좋아요'에 의지하며 애인도, 진로 선택도 생면부지의 온라인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이다.

- ① (가) - ㉠, (나) - ㉡ ② (가) - ㉢, (나) - ㉣
- ③ (가) - ㉡, (나) - ㉠ ④ (가) - ㉣, (나) - ㉢
- ⑤ (가) - ㉣, (나) - ㉡

43.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단을 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글을 다시 읽어 보니 마지막에 한 문단을 추가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의 인식 전환을 권유해야겠어.

- ①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설령 실패할 수는 있더라도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기억하자.
- ② 신중한 선택은 밝고 행복한 미래를 불러오지만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늦춘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 이제 선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선택을 믿어 보자.
- ③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결단의 순간들이 많이 생긴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필요한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대 놓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용감한 심장'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 ④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도 회피하려는 이 시대의 햄릿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기보다 선택의 결과가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제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대판 햄릿'의 꼬리표를 떼어내야 한다. 선택의 순간들을 주도적인 결정으로 하나하나 채워 나갈 때, 스스로가 느끼는 자신의 인생은 더욱 멋지고 감동적일 수 있지 않을까?

44. 밑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앞뒤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또한'으로 고쳐야겠어.
- ② ㉡에는 의미를 고려하여 '남 탓으로'를 추가해야겠어.
- ③ ㉢는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제거하는'으로 바뀌어야겠어.
- ④ ㉣는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는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다.'로 고쳐야겠어.

45. 밑글을 쓰기 전 세운 계획 중 밑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인 통념을 언급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지.
- ②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드러내야지.
- ③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지.
- ④ 명대사를 인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해야지.
- ⑤ 질문 형식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드러내야지.

[46~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떡이'나 '눅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떡이'와 '눅이'의 '떡-'과 '눅-'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떡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떡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떡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4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47.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우리는 용돈을 납졌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옷이 못에 걸려 찢졌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졌다.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졌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48.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대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실제 발화가 전달하는 의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 내일 ○○여고 축제에 같이 갈래?
 B: 내일 나 시험이야.

위 대화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만 해석하면 B의 대답은 동문서답에 가깝다. 그러나 이런 발화로도 완벽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화자는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생산하고 청자는 화자가 생산한 의미를 여러 가지 근거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때문이다.

- ① A: (지호를 다급하게 찾으며) 지호 못 봤니?
 B: 지호가 아침에 타고 온 자전거는 도서관 앞에 있던데.
- ② A: (아이가 약을 시간에 맞춰 먹었는지 확인하며) 너 오늘 약 먹었어?
 B: 약을 집에 놓고 나왔지 뭐예요.
- ③ A: (우체국의 위치를 궁금해하며) 우체국이 어디에 있지?
 B: 학교 앞 사거리에 있어.
- ④ A: (저녁에 먹을 음식을 미리 정하려는 의도로)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B: 뭘 더 먹기에는 난 배가 너무 불러.
- ⑤ A: (오늘 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며) 선생님께서 내 주신 과제가 뭐였지?

국어 영역

고 3

B: 나 어제 아파서 결석했어.

4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효창: 민석아, ㉠**지난번에** 얘기했던 진로 체험 활동 잘 다녀왔어?
 민석: 응. ㉡**거기**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효창: 그래? 근데 며칠 전 ㉢**그때**는 재미없을 거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
 민석: 아! ㉣**그거**. 나보다 먼저 다녀온 원석이가 실망스러웠다고 말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효창: 네 말 듣고 나니 웬지 나도 ㉤**그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 지네.

- ① ㉠: 담화에서 두 담화자가 공유했던 시기로, 과거에 담화가 이루어진 때를 가리킨다.
- ② ㉡: 민석이가 진로 체험 활동을 다녀온 곳을 가리키며 효창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곳이다.
- ③ ㉢: 바로 앞에 나온 '며칠 전'을 대신하여 쓴 표현으로 '며칠 전'을 강조하듯이 가리키고 있다.
- ④ ㉣: 민석이가 과거에 '진로 체험 활동이 재미없을 거 같다고 말했던 사실'을 대신하여 쓴 표현이다.
- ⑤ ㉤: 현재의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 화자에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50.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u>몹스</u> 를 <u>여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번개 구름을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홀어</u>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51~53] 다음은 인터넷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염학회 "1~2주 후 일일확진 1000명...거리두기 격상해야"
 - 11개 전문학회 성명서 "유행 악화 가능성 높아"
 "중환자 병상 급속 소진" 예측...방역 강화 요청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1개 전문학회는 1주일~2주일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20일 경고했다. 이들 11개 학회는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감염 관련 11개 전문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거리두기 방안은 이전에 비해 완화한 기준으로 개편돼 전파 위험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역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일일 감염재생산수는 1.5를 넘어서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일이 경과하면 일일 확진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코로나19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학적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 증가, 이를 통한 추가 확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개 전문학회는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해 방역 조치는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해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략)

NEW1뉴스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2020-11-20

(나)

거리두기 격상 놓고...정부 "아직 일러" vs 전문가 "너무 느려"



정부는 오는 29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여부를 내놓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세계일보 박유빈 기자 2020-11-28

(다)

거리두기 격상에 사라지는 일자리...향후 취업 전망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곳을 하나만 꼽으라면, 노동시장이 자주 거론됩니다. 경제 충격이 서비스업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와 연동된 종업원의 실직까지 겹쳐 실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우리 물건을 사 줄 중국이 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추가 타격이 많지 않겠지만 고사 위기에 놓인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또 3단계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지 먼저 따져 봐야 할 겁니다. 오늘(16일) 이슈분석에서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Q.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고용동향 발표가 있는 주간입니다. 앞서 그저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더 나빠지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9만명 증가, 이 정도면 코로나 19 이전의 증가세와 비슷하거든요. 그저께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SBS 이광호 기자 2020-12-16

51. (가)~(다)의 매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쇄 매체와 달리 댓글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소통할 수 있다.
- ② 인쇄 매체와 달리 정보를 제공할 때 영상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③ 인쇄 매체와 달리 지식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
- ④ 음성 언어와 달리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 ⑤ 음성 언어와 달리 지식의 기록, 축적, 보존이 가능하다.

52. (가)~(다)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다) 모두 '거리두기 격상'을 다룬 기사이군.
- ② (가)는 (나), (다)와 달리 부제를 사용하여 표제를 보충하고 있군.
- ③ (가)와 (나)는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군.
- ④ (가)와 (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영상과 글로 그대로 제시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군.
- ⑤ (다)는 (가)에서 다룬 내용이 실현되었을 때의 우려되는 점을 다루고 있군.

53. (가)~(다)를 통해 추론해낼 수 있는 '매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체 자료에는 생산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담겨 있으므로, 그 안에 담긴 생산자의 관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② 매체에 따라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이 다르므로 매체의 형식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해야 한다.
- ③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생산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며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④ 같은 사실을 두고서도 생산자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두어 매체 자료를 생산하였는지에 따라 내용과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
- ⑤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어휘나 문장 표현뿐 아니라 도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시각 자료, 동영상 자료 등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어 영역

고 3

[54~56] (가)는 책에 실린 글이고, (나)는 블로그에 실린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스매시(smash)

스매시는 높이 떠오르는 셔틀콕을 빠른 속도와 강한 힘으로 화살과 같이 상대방의 코트 면에 쳐서 넣는 타구이다. 배구의 스파이크와 마찬가지로 스매시는 배드민턴의 기술 중 가장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공격적 파괴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주로 셔틀콕을 빠르게 낙하시켜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며 랠리의 결정구로 사용된다.



타구하는 방법은 속도를 신기 위해 백스윙을 시작하는 동작이나 타구 후의 동작 등을 크게 해야 한다. 공격에 성공하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지만, 실수가 잦다는 것이 스매시의 단점이다. 또한 동작이 클수록 상대에게 공격이 임하기 쉽고, 타구 후에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비교적 늦어져 상대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매시는 강하고 빠른 속도로만 타구하려 하지 말고 날카로운 각도로 경기장 양쪽 구석을 향해 정확히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타구하는 방법은 속도를 신기 위해 백스윙을 시작하는 동작이나 타구 후의 동작 등을 크게 해야 한다. 공격에 성공하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지만, 실수가 잦다는 것이 스매시의 단점이다. 또한 동작이 클수록 상대에게 공격이 임하기 쉽고, 타구 후에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비교적 늦어져 상대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매시는 강하고 빠른 속도로만 타구하려 하지 말고 날카로운 각도로 경기장 양쪽 구석을 향해 정확히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ㄱ. 스매시 공격 조건

스매시는 지능적인 작전을 잘하는 경기자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체력의 소모를 적절히 조절할 것(과도한 스매시는 삼갈 것).
- 결정적 순간의 포착을 위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것.
- 수비자의 허술한 지점을 포착하여 공격할 것.

- 오성기 외, 『배드민턴 핸드북』에서

(나)

무지개 님 블로그 | 이웃 블로그 | 바로 가기
 프로필▶ 쪽지▶ 이웃 추가▶

목록

전체 보기(1222)

나의 일상

• 독서 감상

• 영화 감상

• 배드민턴

• 일기장

스트로크 익히기: 스매시 편

배드민턴 기술 중 다양한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배드민턴 그립 잡는 방법은 링크를 누르세요. [배드민턴 그립 링크](#))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라면 멋진 스매시를 구사하고 싶어 합니다.

스매시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체에 힘을 빼고 점프한 뒤, 라켓을 어깨 뒤로 뺀 후 백스윙을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충분히 해 준 후, 셔틀콕을 15도 정도 앞에서 타격해 주고, 손목을 최대한 이용하여 내리כות는 느낌으로 칩니다.

자세는 아래 동영상참고해 주세요.



댓글 12개 | 엮인 글 | 글쓰기

최최차차 |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전에서 스매시 기술을 써 보려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 무지개 | 스매시는 네트에서 가깝고 높은 타점에서 내리칠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게시물에 포함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반복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54. (가)와 다른 (나)의 매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댓글을 통한 글쓴이와 읽는이의 상호 소통할 수 있다.
- ② 블로그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
- ③ 동영상을 통해 문자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단시간 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 ④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정보 간 유기적으로 조직이 가능하다.

55. <보기>는 TV 프로그램 장면의 일부이다. (가), (나)와 <보

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진행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리포터, 이번 주 ‘우리 가족 체력 지킴이’에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운동을 알려 준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어떤 운동인가요?
 리포터: 네. ○○○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가족 체력 지킴이’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배드민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4인 가족이 하기 정말 좋은 운동이고, 규칙도 쉽고 준비물도 간단한 편인데요. …… (후략)

- ① 정보 제공 속도가 빠른 순으로 나열하면 (나), <보기>, (가)이다.
- ②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넓은 순으로 나열하면 (나), (가), <보기>이다.
- ③ 정보의 대량 복제와 배포 등에 있어서는 (가)에 비해 (나)가 유리하다.
- ④ (가)의 경우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폐쇄적이지만 정보의 신뢰성이 높으며, (나)의 경우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개방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 ⑤ (나)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버 등의 장치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정보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정보가 소실되는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5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 모두 매체를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모두 문자 언어를 활용하여 스메시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정보가 활자화되어 유통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수정이나 보완이 어렵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동영상을 통해 스메시를 하는 자세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핵심 정보와 연관성이 있는 부가적인 정보는 하이퍼링크로 연결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②	2	②	3	⑤	4	⑤	5	①
6	②	7	②	8	③	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①	14	⑤	15	⑤
16	②	17	③	18	①	19	①	20	④
21	⑤	22	⑤	23	②	24	⑤	25	④
26	①	27	④	28	④	29	②	30	⑤
31	①	32	②	33	③	34	④	35	③
36	⑤	37	④	38	④	39	⑤	40	③
41	①	42	④	43	③	44	⑤	45	①
46	③	47	④	48	③	49	⑤	50	③
51	③	52	③	53	②	54	④	55	②
56	②	수고하셨습니다.							

[1~5] 문학 - 현대시

[지문 분석]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공간적 배경. '나'의 곤궁한 처지를 알 수 있음.)의 흰 **바람벽**(방이나 칸살의 옆을 둘러막은 돌레의 벽)에

어쩐지 **쓸쓸한**(화자의 정서를 직접 드러냄.)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매개물. 흰색은 곤궁함 속에서도 순결한 화자의 내면을 상징함.)에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나'의 곤궁한 처지와 쓸쓸한 정서를 나타냄.)

매글은(때에 절어 검게 된) 다 낡은 무명 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향토적 소재. 소박한 화자의 소망)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화자의 외로운 내면)이 헤매인다

▶ 1~6행: 현재 '나'의 처지

그런데(시상의 전환)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그리움의 대상 ①)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그리움의 대상 ②)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너 먼 **앞대**(어떤 지방에서 그 남쪽의 지방을 이르는 말) 조용한 **개포**('개'의 평안북도 방언.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얹어 **대구국**(향토적 소재)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7~16행: 흰 바람벽에 비친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시상의 전환) 또 **이즈막**(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에 이르는 가까운 때)하야 어너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화자의 자아 성찰)
이러한 글자들(‘나’의 자각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글자들로 표현함. 시각적)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화자의宿命론적 태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매우 홀가분하여 외롭고 쓸쓸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 17~23행: 운명에 대한 '나'의 자각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는 일이나 힘. 여기서는 '힘으로써 억누르다'라는 뜻의 '위력'으로 읽을 수 있음.)하는 듯이

[**눈질**(눈으로 흘끔 보는 것. 여기서는 '위로의 눈길'의 의미로 읽을 수 있음.)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나'의 내면 의지를 북돋는 행위) **이런 글자들**(시상의 흐름 속에서 영상과 글자는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그리운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주고, 화자의 쓸쓸한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지나간다

— **하늘**(화자가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귀여워하고'의 평안북도의 방언. 여기서는 '귀하게 여기고'의 의미로 읽을 수 있음.)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박꽃)과 **짹새**(뱀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 열거법)
 그리고 또 **프랑시즈 켄**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화자와 같이 고독하면서도 '높은' 삶을 산 사람들)가 그러하듯이

▶ 24~29행: 자신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현재의 처지에 대한 자기 위안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 핵심 정리

■ 성격: 애상적, 영상적, 의지적, 회고적

■ 표현

- 연상 작용을 통해 내용을 전개함.
-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국어 영역

고 3

- 주제
 - 고단한 삶의 자기 위무
 -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 바람벽에 오고 사는 외로운 생각들과 시적 화자의 체념 및 자기 위안

▣ 이해와 감상

백석은 우리 민족의 삶을 표현하는데 민속적이고, 향토적 소재를 많이 사용한 시인으로 그의 시에서 '감주, 대구국' 등 음식물이 나오는 것은 가난한 시대의 굶주림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추운 날 배추를 씻는 늙은 어머니와 아이를 옆에 끼고 지아비와 대구국을 먹는 여성을 흰 바람벽에 떠오른 상상 속에서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고 자기를 위로한다.

화자의 처지와 정황은 매우 슬프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토로한다. 좁은 방에 누워 희미한 불빛, 서글픈 느낌을 자아내는 방의 차갑고 흰 벽을 쳐다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떠올려 보고 있다. 어렵게 살아가는 늙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설령 삶이 힘이 들지라도 좌절하기 보다는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나 시인들도 그러했듯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하늘이 낸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수용하고 있다. 요컨대 이 시는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을 스크린 영상에 담아낸 영상시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지문 분석] (나)

새벽 시내버스(서민들의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는 차창(화자는 '차창'에 어린 '성애꽃'을 보고 서민들의 '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 친구의 '푸석한 얼굴'을 떠올림. 즉 '차창'에 어린 '성애꽃'을 보고 서민들의 삶의 숨결을 연상하고 있는 것)에 웬 찬란한 치장(성애꽃을 비유한 표현 ①)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힘겨운 현실)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애꽃

▶ 1~4행: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핀 성애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평범한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성애꽃을 비유한 표현 ②)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서민들에 대한 애정이 나타남.)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성애꽃을 비유한 표현 ③. 성애꽃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느낌. → 역설적 표현)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 없이(아무 까닭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서민들에 대한 연민의 행위. 화자는 다양한 형상의 성애꽃에 애정과 연민, 연대의 감정을 느낌.)

▶ 5~19행: 성애꽃에 나타나는 서민들의 삶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장면의 전환. 친구를 떠올림.)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 20~22행: 만날 수 없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 최두석, 「성애꽃」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역설적, 회화적, 상징적, 참여적
- 어조 :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민의 목속리(그리움과 공감의 어조)
- 특징
 - 일상의 사물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여(성애→꽃)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함.
 - 감각적이고 역설적으로 표현함.
 - 성애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억눌린 시대 상황을 노래하며 이웃과 서민들에 대한 연대감을 드러냄.
- 제재 : 차창에 서린 성애
- 주제
 - 어두운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과 애환
 - 시대현실에 대한 아픔과 서민들의 삶에 대한 사랑

▣ 이해와 감상

이 시에서 시인은 버스의 창을 통해 우울한 사회 현실의 초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우울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버스 차창에 비친 세상의 풍경은 얼룩져 있고, 그것을 보는 시인의 마음은 막막하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성애꽃을 피워 낸다고 보는 것이다. 화자는 이리저리 오가면 그 성애꽃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서민적인 삶의 애환을 함께 느끼며 공감의 세계로 나아간다. 한겨울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이 피워 낸 꽃이기에 차창의 성애꽃은 역설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있다.

[지문 분석] (다)

폴(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 높는다(폴의 나약한 모습) 폴([]: '폴'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음.)

비를 몰아오는 **동풍**(비를 몰고 오며 풀에게 외부적인 힘을 가하는 존재임. 풀을 억압하는 존재. 외부 세력)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풀의 나약한 모습)

날이 흐려서(암담한 현실 상황)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 풀의 나약함과 수동성

풀이 눕는다.

바람(= 동풍)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풀의 능동성. 풀이 바람에 대응하는 모습. 수동성에서 능동성으로 시상이 전환됨.)

▶ 풀의 강인함과 능동성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밭목까지

밭밑까지 눕는다.(철저하게 고통받는 풀의 모습)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풀의 강인한 생명력)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고통을 이겨내는 풀의 의연함)]([]: 풀의 행위가 대비됨. ‘눕는다’↔‘일어난다’, ‘운다’↔‘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풀의 고통이 지속되는 현실)

▶ 풀의 강인한 생명력

- 김수영, 「풀」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주지시, 참여시

■ 성격 : 상징적, 의지적, 주지적, 현실 참여적

■ 어조 : 감정을 절제한 목소리

■ 운율 : 반복과 대구에 의한 리듬 형성

■ 특징

■ 대립 구조(1960년대의 대표적 참여시로서 대립적 심상의 반복으로 주제를 부각시키며, 동일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적 리듬감을 얻고 있는 시이다. 암울한 시대 상황이나 횡포 속에서도 지혜롭게 견디는 백성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사소한 자연현상 속에서 인간 세계의 여러 문제를 찾아내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시다. 하잘것없어 보이는 생명과 그것을 억누르려는 거대한 힘과의 싸움을, 반복되는 단순한 구조의 말로써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 '눕다'↔'일어나다', '울다'↔'웃다'라는 네 개의 동사가 반복적인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 '풀'과 '바람'이라는 대립이 '눕는다'와 '일어난다'는 운동의 반복 속에서 하나로 합일되는 체험을 노래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이 노래를 散文의 내용으로 바꾸어 보자. 문장의 기본 골격은 '날이 흐리다', '바람이 분다', '풀이 눕는다', '풀이 운다', '풀이 일어난다'가 될 것이다)

풀이 눕는다', '풀이 운다', '풀이 일어난다'가 될 것이다)

■ 반복과 대구(對句)의 리듬 감각

■ 제재 : 풀

■ 주제 : 민중(民衆)의 끈질긴 생명력

■ 출전 : 1968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유고시로 발표

■ 구성

■ 제1연 : 풀의 나약함(수동성)-바람에 나부껴 눕고 우는 풀

■ 제2연 : 풀의 끈질긴 생명력(수동성→ 능동성)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풀의 의미가 전환되는 부분(나약함→ 강인함)

■ 제3연 : 풀의 넉넉함-능동성 강조(→능동성과 여유까지 지닌 풀)

- 마지막 행의 '풀뿌리' : 끈질긴 삶을 표현하기 위한 시인의 의도적인 시어 선택으로서 곧 일어설 것임을 전체로 한 침묵임.

- 눕고 일어남 : 삶의 반복성

■ 이해와 감상

시인들은 때때로 평범한 자연 현상 속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비유 또는 상징을 발견한다. '풀' 역시 그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표면적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어느 흐린 날 비가 오기 직전의 스산한 바람이 부는 들판을 생각해 보자. 그 들판에는 아주 여린 무수한 풀들이 돋아나 있고, 비를 몰아 오는 바람은 점점 거세게 불어 풀들을 눕히고, 쓰러뜨리고, 또 울리고 있다. 그러나 바람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풀은 다시 일어나 웃는다. 이것이 이 시의 표면적 내용이다. 그러나 이 시는 풀과 바람의 단순한 현상적 관계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시에 대한 더 분명한 이해는 풀과 바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는 데에 있다. 풀은 만물 가운데 가장 흔하다. 또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부러 키우지 않아도 역세게 자라는 끈질긴 생명력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민중들을 이 풀에 비유해 왔다. 결국, 풀은 '민중'이며 이 작품은 민중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면 바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시에서 바람은 풀의 생명력을 억누르는 존재이다. 그렇다면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올바르지 못한 세력의 상징이다.

제1연에서는 풀과 바람의 관계를 설명한다. 풀은 바람에 의해 나부끼고, 눕고, 운다.

제2연에서는 풀과 바람의 대조가 뚜렷하다. 풀은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더 빨리 울고, 먼저 일어난다. 우리는 여기서 풀의 연약함과 아울러 '먼저 일어난다'는 끈질김을 볼 수 있다.

제3연에서는 풀과 바람이 대립을 반복한다. 이 반복을 통해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의 의미는 대략 드러난다. 풀과 바람의 싸움은 이 세상에 있는 연약한 민중들의 굳센 생명력과 그것을 억누르고 괴롭히려는 세력의 싸움인 것이다. 이 싸움을 노래하면서 시인은 하잘것없어 보이는 생명의 끈질김이야말로 어떤 불의한 외부의 억압도 이겨내는 힘임을 보

국어 영역

고 3

여 준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에서 역사의 흐름이 비관적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결국, 이 시는 아주 일상적인 자연물인 풀과 바람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노래한 것이다.

1. <답> ②

<정답 풀이>

(가)와 (다)에서 모두 시상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자의 정서 변화는 (가)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2. <답> ②

<정답 풀이>

②는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시구를 이해한 내용이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3. <답> ⑤

<정답 풀이>

처절하게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지만, 민중이 희생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4. <답> ⑤

<정답 풀이>

(나)와 <보기>에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지만, 두 시의 화자가 모두 부정적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는 힘겨운 현실에 처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 연대의 감정을 느끼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아직은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5. <답> ①

<정답 풀이>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을 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6~11] 독서 - 인문·사회 복합

[지문 분석] (가)

민주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공공 문제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언론의 역할 ①)**과 활발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언론의 역할 ②)**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의견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이고, **언론은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다.(언론의 의의)**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언론 활동, 즉 보도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언론 활동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세력의 힘의 관계를 반영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힘의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에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의 정당성도 낮아지게 된다.

1문단: 민주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가 선별된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되는 한, 여론은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제로서 작용하게 되고, 동시에 정부 정책의 효과도 여론에 반영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또, 공공 문제에 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사회 질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언론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언론은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야 함.)**

2문단: 언론에 의한 정부 정책의 정확하고 신속한 유통의 필요성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 제도에서 집권 여당은 정책과 정책 결정에 관한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소수 유권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편중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지지를 계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정략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선거에서 승리하려 한다기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책을 만듦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추적하고 발표되는 정책의 진실성 여부와 그 적절성에 대한 탐사와 비판을 통하여 정부를 견제한다. 언론은 또 공직자들의 특정 이해 집단과의 담합 등 비리를 감시함으로써 최대의 공익을 실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언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함.)**

3문단: 언론의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언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도 즉시 알려 줌으로써 국민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 언론의 환경 감시 역할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천재 지변, 전쟁 등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리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4문단: 언론의 환경 감시 역할

자유 민주주의는 정치 권력이 국민에 의해 인정받아야 하므로, 정치적 의견과 의지의 형성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신적인 상호 교류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책을 이해하

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언론은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나 사회적 사건을 보도하고 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5문단: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한 열린 정보와 여론 형성 제공

- 주제 : 민주주의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는 언론의 역할
- 해제 : 민주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이란 정부 정책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이를 토론했하여 여론 형성을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언론의 3자 관계를 파악하여 민주주의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는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

[지문 확인]

1문단: 민주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

- 언론의 역할
 - 공공 문제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활발한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

2문단: 언론에 의한 정부 정책의 정확하고 신속한 유통의 필요성

- 언론의 역할에서 정부 정책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
 - 여론이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통제 기제로서 작용하게 되고, 동시에 정부 정책의 효과도 여론에 반영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게 됨.
 - 공공 문제에 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사회 질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함.

3문단: 언론의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 언론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함.

4문단: 언론의 환경 감시 역할

- 언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도 즉시 알려 줌으로써 국민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함. 이를 환경 감시 역할이라고 함.

5문단: 정부의 정책 결정에 관한 열린 정보와 여론 형성 제공

- 언론은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나 사회적 사건을 보도하고 이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지문 분석] (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자살 문제가 10대 사망 원인 중 9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고, 자살률도 10만 명당 10.6명에서 24.0명으로 증가했다.(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심각성을 일깨움.) 자살이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과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장년층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개인이 왜 자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무엇보다 미디어(개인이 자살하는 데 영향을 줌.)가 자살을 사회에 전염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1문단: 사회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

우리는 미디어 사회에 살고 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자살 문제와 자살 현상(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됨.) 역시 미디어를 통해 접한다. 언론은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문제는 그러한 보도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나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장년들과 노인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모방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문단: 자살을 사회에 전염시키는 매체가 되는 미디어

미디어의 광범위한, 그리고 무분별한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copypat suicide)’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다. 1774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되자 이탈리아, 라이프치히, 코펜하겐 등지에서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 소설의 판매를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자살의 전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자살하는 내용이 나옴을 추측할 수 있음. 금세기에 들어와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자살의 전염성을 ‘베르테르 효과(the Werther effect)’라고 부르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신문이나 TV(미디어)를 통해서 묘사되는 자살에 대한 기사들과 소설 속의 가상의 자살 묘사들이 일반인들, 특히 잠재적인 자살 시도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제안들이 지지를 얻고 있다.

3문단: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 보도의 위험성

최근에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뿐 아니라 영국, 호주와 일본을 포함하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미디어를 통한 자살 보도가 후속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연구 결과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후속 자살을

국어 영역

고 3

31

일으킬 가능성이 그 외의 사람에 대한 자살 보도보다 14.3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TV보다는 신문에서의 자살 보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TV와 신문 모두 미디어이지만, 신문이 모방 자살을 더 촉발시킴.) 이는 신문 기사는 TV 기사와 달리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자살한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나 자살의 원인 추측, 가족 인터뷰 등의 세부 자료를 싣고 있어 독자에게 자살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신문이 TV보다 자살 보도의 영향력이 더 큰 이유)

4문단: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후속 자살에 미치는 영향

언론의 주된 역할은 독자와 시청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언론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님.)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가(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자살은 전염이 되며, 미디어는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아직 삶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인지한 '자살'을 근거로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과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장년층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자살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 언론 보도가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5문단: 언론의 자살 사건 보도시의 유의점

- 주제 : 자살 보도에 대한 미디어의 바람직한 태도
- 해제 : 이 글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을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 보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무분별한 자살 보도의 위험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 보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살은 사회를 전염시키는 매체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한 언론 보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문 확인]

1문단: 사회 문제로 떠오른 자살 문제

- 자살이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층과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장년층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급히 대처해야 할 문제로 떠오름.
- 미디어가 자살을 사회에 전염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음.

2문단: 자살을 사회에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미디어

-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게 되며, 자살 문제와 자살 현상 역시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됨.
- 자살 보도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나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장년들과 노인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3문단: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 보도의 위험성

- 미디어의 광범위한, 그리고 무분별한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음.
 - 사례: 1774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판되자 젊은 이들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함.

4문단: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후속 자살에 미치는 영향

- 다양한 국가들에서 미디어를 통한 자살 보도가 후속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고 있음.
- 연구 결과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후속 자살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 외의 사람에 대한 자살 보도보다 14.3배나 높았음.
- TV보다는 신문에서의 자살 보도가 영향력이 컸음.
 - 이유: 신문 기사는 TV 기사와 달리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자살한 사람의 사회적 배경이나 자살 원인 추측, 가족 인터뷰 등 세부 자료를 싣고 있어 독자에게 자살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5문단: 언론의 자살 사건 보도시의 유의점

- 언론의 주된 역할을 독자와 시청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의무이지만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것인지에 대해 유의해야 함.

6. <답> ②

<정답 풀이>

(가)는 민주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고, (나)는 언론의 역할을 언급한 뒤, 자살 보도를 할 때의 유의점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7. <답> ②

<정답 풀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는 2문단과 3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가 정보의 완전한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단지 공공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정보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8. <답> ③

<정답 풀이>

<보기>의 개요를 이 글의 각 문단의 내용 및 역할과 관련하여 비교해 보는 문제 유형이다. 각 문단의 요지 및 논지 전개상의 특징, 구성상의 특징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문단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하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

생활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막기 위해 요구되는 언론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9. <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은 미디어의 자살 보도가,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은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자와 시청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하고,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선에서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사건 자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사례로 들고 있다.
- ②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자살의 순위와 자살률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10. <답> ④

<정답 풀이>

<표 1>의 자살 통계치를 보면, 여성은 28.2%인 데 비해 남성은 71.8%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살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실제 자살 통계치보다 보도 건수의 비율은 여성이 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남성의 자살 보도 비율이 높다고 서술한 ④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③ <표 2>에서 보면 자살자의 신원을 전면 공개한 경우가 50%를 넘었다.
- ⑤ <표 4>를 보면 자살 기사에 언급되는 자살 원인이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11. <답> ①

<정답 풀이>

<보기>에서는 유명 록그룹의 리더싱어가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의 자살 보도는 호주 청소년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죽음을 약물 문제와 수차례의 자살 실패 등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서 얻을 수 있는 ‘자살 보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은 자살 행위 자체를 미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기인일 경우,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12~15] 문학 - 고전 소설

전라남도 남원(공간적 배경)에 양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일찍이

아버이를 여의었는데, 아직 장가들지 못한 채 반복사라는 절간 구석방 하나를 얻어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다. 한번은 외로움에 지쳐 신세 타령의 시 한 수를 읊고 나자 공중으로부터 소리가 들리되 (비현실적 요소)

"그대가 참말로 고운 배필을 만나고자 할진대 그 무엇이 어려울 것 있으랴!"

하니 양생은 크게 기뻐하여 마지 않았다. 이튿날 양생은 저녁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려 법당에 들어가 자기 소매 속에 깊숙이 간직해 가지고 갔던 저포(樗蒲)를 내어, 부처님께 사뢰기를,

["오늘 제가 부처님을 모시고 저포놀이(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그 사위로 승부를 다투는 놀이. 윗놀이와 비슷함.)를 하고자 하나이다. 만약 소생이 지면 법연(法筵)을 베풀어 부처님께 보답해야 할 것이오며, 만약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반드시 미녀를 소생의 배필로 점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양생이 부처님께 저포놀이를 청하며, 부처님이 지면 아름다운 배필을 증매해달라고 함.)

하고 축원한 다음, 곧 저포를 던졌더니 양생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는 곧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인연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소생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한 후에 불탁(佛卓) 밑에 숨어서 동정을 살폈다.

이윽고 꽃같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나이는 열 대여섯 정도인 듯하고 검은 머리에다 깨끗한 단장이 마치 채운을 타고 내려온 선녀 같아서 그 고운 모습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웠다. 흰 손으로 기름을 등잔에 따라 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쬐은 뒤에 세 번 절하고 꿇어 엎드려 슬피 탄식하며,(시각적, 색채 이미지, 비유법을 통해 여인을 묘사함.)

"인생이 박명(薄命)하기 어찌 이와 같으오리까?"

하고 품 속에 간직하였던 축원문을 부처님께 바친 다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불탁 밑에 숨어 엿보고 있던 양생은 그 아름다움에 정을 가누기가 어려워, 뛰어나와 일러 가로되,

"남자가 지금 읽은 글월은 대체 무슨 내용의 것이오니까?"

"소녀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왜구가 침입해 와 건물을 파괴하고 노략질해 가자 버드나무와같이 가냘픈 소녀는 먼 길 피난하기가 여의치 못하여 벽지에 옮겨 초야에 묻혀 살기 속절없이 삼 년이라.(여인의 처지) 달 밝은 밤이면 그 음한 골짜기에 평생 박명(薄命)에 한숨겨워 외로움을 슬퍼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니 서러운 간장(간장과 창자. 애가 타서 녹을 듯한 마음) 다 녹이고 혼백마저 흩어졌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무쪼록 꽃다운 배필을 점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략>

["저도 어릴 때 글을 읽어 예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너무 오랫동안 들관 다복죽 속에 묻혀서 버림받은 몸이 되고 보니 사랑의 정회(情懷) 한 번 나매 견잡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절로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서 향불을 피우면서 한평생의 박명을 자탄하였더니, 뜻밖에도 삼세의 인연을 만나매 당신의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으나, 애달프게도 이승에서의 삼 일 간의

국어 영역

고 3

33

시간이 다하였기에 한시바삐 저승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이제 한번 하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회를 무어라 말씀드리겠나이까?"

남자는 소리를 내어 울더니 영혼은 문 밖으로 나갔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슬픈 소리만 은은히 들려왔다. **「([] :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 왜구의 난리통에 죽은 처녀의 환신이었음. 비현실적 요소)** 양생은 그 남자가 귀신이었음을 알고는 슬픔을 느끼어 울었다.

이튿날 양생은 주옥을 갖추어 개녕동 옛 자취를 찾으니, 과연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제전을 차려 슬피 울면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제문을 지어 읽었다.

하루는 공중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의 은덕으로 저는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幽明)의 한계는 더욱더 멀어졌사오니, 당신의 두터운 은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저와 같이 속세의 누를 초탈하소서."

양생은 그 뒤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하나,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설화적 마무리)**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핵심 정리

- 작자 : 김시습
- 연대 : 세조 때
- 갈래 : 한문소설, 단편소설, 전기소설, 염정(艷情) 소설
- 배경
 - 시간 - 고려 말(1380년) 최무선 장군의 화공(火攻)에 패배한 왜구들이 호남에 흩어져 노략질을 일삼을 때
 - 공간 - 전라도 남원 만복사
- 구성 : 기승전결의 4단구성
-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 문체 : 문어체, 산문체, (부분적으로) 운문체
- 인물
 - 양생 :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인물. 생사를 초월한 사랑도 마다하지 않음.
 - 죽은 여인 : 사랑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여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열적 여인.
- 구성
 - 발단 : 부처님과 저포놀이
 - 전개 : 여인과의 인연
 - 위기 : 여인의 정체
 - 절정 : 여인과의 사랑 및 여인의 사라짐
 - 결말 : 양생의 은둔
- 제재 : 죽은 남녀 간의 사랑
- 주제 : 시공을 초월한 사랑
- 의의
 - 최초의 한문소설

- 현실주의적 지향의 소설이다.
- 몽유록계 소설의 효시, 전기 소설의 백미

■ 줄거리

전라도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의 불당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저포놀이를 청했다. 그가 지면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릴 것이요, 부처님이 지면 그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증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기였다. 서생은 두 번 저포를 던졌다. 그 결과 서생이 이겼다. 서생은 불좌 밑에 숨어서 배필이 될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때 문득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는데, 이 여인도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하소연하면서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이를 본 서생이 그 여인 앞으로 뛰어나가 회포를 말하니 두 사람은 정이 통해져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실은 이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 왜구의 난리통에 죽은 처녀의 환신(幻身)이었다. 이튿날 여인은 서생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기를 권했다. 서생은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사흘 뒤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인이 서생에게 신표로서 은주발 한 개를 선사하였는데 그것은 그 여인의 무덤에 매장한 부장품이었다. 다음 날-이 날은 여인의 대상(大喪)인 동시에 갯날이었다.- 그들은 보련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재가 끝난 뒤 여인은 인연이 끝내 그 여인을 잊지 못하여 장가도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평생을 마쳤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양계(陽界)와 음계(陰界)의 인물의 만남, 이별, 양계의 인물이 속세를 버림'이라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주인공 양생은 비록 현실이 아닌 음계의 인물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것을 한갓 장난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알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생각했다. 음계의 여인이 사흘 동안의 재가 끝난 후 공중에 나타나, 자신이 양생의 은덕으로 타국의 남자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양생에게 정업을 닦아 속세의 누를 벗어날 것을 부탁하지만, 양생이 장가도 들지 않고 속세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작품은 설화적 소재에 자신의 창의성을 가하고 상당 수준의 소설적 형식을 갖추으로써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12. <답> ②

<정답 풀이>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사관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작품 후반부에 제시된, “당신의 은덕으로 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남자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글쓴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다른 세상에서 다시 환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13. <답> ①

<정답 풀이>

남자와 영원히 이별한 후, 양생이 속세를 등졌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귀영화를 추구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4. <답> ⑤

<정답 풀이>

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요약한 후, 이를 적절한 한자 성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갚는다’는 뜻인데, 작품에서 양생이 남자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초보은’은 적절하지 않다.

15. <답> ⑤

<정답 풀이>

남자의 혼백이 다시 환생하였다는 소식은 양생이 제문을 지은 다음에 들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제문에 들어갈 수 없다.

[16~19] 문학 - 현대 소설

[지문 분석]

그가 녀 달 전에 이곳(공사관, 영달은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공사장 인부임.)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새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임.)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영달은 밥값을 떼어먹고 달아남.)

(중략)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풍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꼼짝 못 하고 주저앉아 신음(발이 뻐 것으로 인한 고통)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백화를 걱정하는 영달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 행동) 백화는 영달이의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등에 업히는 것이 미안해서 하는 말)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한 느낌이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영달의 배려. 영달은 백화에 대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함.)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달이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옥자를 떠올리며 백화에 대해 연민을 느낌.)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택이 근수(저울에 단 무게의 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표현은 거칠지만 마음이 따뜻한 영달. 동행하는 과정에서 영달과 백화는 서로 가까워짐.)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기차를 타기 위한 세 인물의 공통된 목적지)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과장(시장 따위가 끝남.)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 왔다.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백화에 대한 영달의 따뜻한 배려와 정서적 유대감을 드러냄.)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뻐 발로 인한 고통 때문)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정 씨가 백화에게 백화의 고향에 가는 기차를 물음.)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여행하는 데 드는 비용, 노자)는 있소?”]([]: 정 씨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남.)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여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팔시루떡(백화의 고마움을 전하는 매개체이자 영달에 대한 백화의 정서적 유대감을 드러내는 소재)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이에게 내밀었다.(자기 몫의 팔시루떡을 영달에게 주는 백화의 행동은 자신을 업어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를 통해 백화가 영달에게 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영달에 대한 백화의 감사와 배려)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백화는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함. 영달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함.)

“나야 삼포(정 씨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 떠돌이 삶을 끝낼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곳)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백화의 제안에 망설이고 갈등하는 영달, 영달의 내적 갈등)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우?”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영달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떠돌이 노동자 처지임.)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고 살게 될지.(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고 사는 것)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영달이 정착해 지내길 바라는 정 씨의 모습에서 정 씨가 영달에

국어 영역

고 3

35

게 인간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정 씨의 말에 공감하고 백화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한곳에 정착해서 백화와 함께 살 수 있는 처지와 능력이 안 되기에 안타까움을 느낌.) 백화는 뭔가 쭈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경제적 능력의 부족(경제적 궁핍)으로 백화와 같이 가는 것을 포기하려는 영달)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백화와 같이 가기를 주저하는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함.)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영달의 비상금 전액)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영달은 백화에 대한 마음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함.)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 빵 두 개와 쥘 달걀(영달이 자신의 비상금으로 산 물건, 백화에 대한 영달의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영달의 따뜻한 인간애가 드러남.) 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영달은 백화의 제안에 대해 거절의 뜻을 전함.)

영달이가 내민 것들(삼립 빵 두 개와 쥘 달걀)을 받아 권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자신을 배려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아쉬운 마음에 동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백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자신의 고향을 찾아간다는 강한 목적의식이 드러남.)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물건을 보에 싸서 꾸러 놓은 것)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동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에 고마워함.)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밝히는 것은 영달, 정 씨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려는 행동으로, 동행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이 줄고 인간적 유대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음. ‘백화’는 술 시중을 들 때의 이름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 즉 본질을 감추는 이름이고, ‘이점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실제 이름으로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임.)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절정: 영달은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백화의 제안을

거절하고 백화를 떠나보냄.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한 시간쯤 잤다. 깨어 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인물들이 헤쳐 나가야 할 고난을 상징함.)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첿,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뇨, 백화란 여자 말예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존 생활 못 배겨 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이 년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 가는 판인데…….(1970년대 당시의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삼포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 주는 인물)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 어왔다.

“어디 일들 가슈?”

“아뇨,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토목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 자동차의 하나. ‘불도저’의 잘못)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일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정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고향인 ‘삼포’의 모습, ‘삼포’의 과거 모습)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삼포의 현재 상황을 모르는 것에 대한 의문)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십 년의 세월로 인해 삼포의 현재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인정)

“말도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십 년 사이에 삼포의 모습이 변해 버림. 현재 ‘삼포’의 모습은 바다가 아닌 육지임.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함을 비유한 말)”

“뭇 땀에요?”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산업화, 도시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변화된 삼포)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그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뭍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사고를 뜻함. 노인은 삼포

가 도시화로 인해 사람이 많아진 것을 재앙으로 보고 있음.)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자연에 대한 외경심을 잃게 됨.)]([: 노인은 삼포의 도시화, 산업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함. 산업화, 도시화로 황폐화된 현실 비판)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떠돌이 생활에서도 항상 마음의 정처였던 삼포에 대한 기대감)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정 씨에게 '삼포'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정처였으나 이제 풍문마저 낯선 잃어버린 고향이 됨.)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관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힘겨운 삶에서도 위안을 주던 고향 삼포가 정 씨의 기억 속에 있는 고향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충격을 받음.)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뜨내기 신세, 고향을 상실하고 마음의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처지)이 되어 버렸다.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마음의 정처를 상실한 정 씨의 내면과 유사함. 목적지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야 하는 영달과 정 씨의 앞으로의 삶을 암시함.)을 향해서 달려갔다.

- ▶ **결말:** 공사관으로 변한 삼포의 소식을 듣게 된 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고 주저함.
- 황석영, 「삼포 가는 길(인물들이 삼포를 향해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인물들이 서로 동질감이나 유대감, 연대 의식 등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임.)」

▣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 소설
- 성격 : 사실주의
- 배경 : 70년대 어느 시골 마을
-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뜨내기 인생의 애환
 - 산업화로 인한 민중들의 궁핍한 삶, 따뜻한 인정과 연대(連帶) 의식
- 표현상의 특징
 - 간결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감정 표현에 여운을 두고 있다.
 - 주로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간단한 대화를 위주로 하여 내용을 압축하고 표현하고 있다.
- 구성
 - 발단 : 정처 없이 길을 나선 영달이 삼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 동행이 된다.
 - 전개 : 삼포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월출로 향해 가던 중 백화를 만나 동행이 된다.

- 절정 : 백화가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자기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
- 결말 : 삼포에도 공사관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는다.

▣ 줄거리

공사관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녀 달 동안 머물러 있던 공사관의 공사가 중단되자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쳐 나온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정씨를 만나 동행이 된다. '정씨'는 교도소에서 목공·용접 등의 기술을 배우고 출옥하여 영달이처럼 공사관을 떠돌아다니던 노동자인데, 그는 영달이와는 달리 정착을 위해 고향인 삼포(森浦)로 향하는 길이다.

그들은 찬샘이라는 마을에서 '백화'라는 색시가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술집 주인으로부터 그녀를 잡아오면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들은 감천으로 행선지를 바꾸어 가던 중에 도망친 백화를 만난다. 백화는 이제 겨우 스물두 살이지만 열여덟에 가출해서 수많은 술집을 전전해서인지 삼십이 훨씬 넘는 여자처럼 늙어 보이는 작부였다. 그들은 그녀의 신세가 측은하게 느껴져 동행이 된다.

그들은 눈이 쌓인 산골길을 함께 가다가 길가의 폐가에 들어가 잠시 몸을 녹인다.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을 느껴 그것을 표현하지만 영달은 무뚝뚝하게 응대한다.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선다. 눈길을 건다가 백화가 발을 다쳐 견지 못하게 되자 영달이 백화를 업는다.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한다.

역에 도착하자 백화는 영달에게 자기 고향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만 영달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비상금을 모두 털어 백화에게 차표와 요것거리를 사준다.

백화가 떠난 후 영달과 정씨는 삼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던 중 삼포에도 공사관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달이는 일자리가 생겨 반가웠지만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는다. 마음의 정처(定處)를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이해와 감상

1970년대 산업 사회는 경제적 발달을 가져다 주었지만, 농어촌의 해체(공동체적 삶의 파괴)와 그로 인한 떠돌이 생활, 도농간의 심한 격차 등 여러 문제점도 유발되었다. 이 작품은 산업화로 인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작중에서 일터를 찾아가는 막노동자 노영달, 감옥에서 갓 나와 귀향하는 정씨, 돈을 훔쳐 달아나는 술집 작부(酌婦) 백화, 이 세 사람은 근대화 때 떠돌아 고향을 등진 채 이곳 저곳을 유랑하는 사람들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 중 정씨만은 아름다운 어촌 고향 마을이 마음 속에 남아 있지만 귀향 기차를 타기 전 관광지 개발로 옛 모습을 깡그리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듣고 나머지 두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

작품의 결말부에서 등장 인물들은 순수한 애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처지가 된다. 이것은 산업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민

국어 영역

고 3

중의 연대 의식이라 할 수 있다.

16. <답> ②

<정답 풀이>

이 소설은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 ④ 장면의 잦은 전환이 드러나지 않으며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 ⑤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17. <답> ③

<정답 풀이>

㉮은 백화가 영달과 정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답> ①

<정답 풀이>

㉮는 정 씨의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안식처로 정 씨가 가고자 하는 공간이다.

<오답 풀이>

- ② ㉮는 정 씨가 꿈꾸는 이상향으로 볼 수 있지만 감자 농사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④ ㉮에서 도자를 끄는 사람은 노인의 아들이다.
- ⑤ ㉮는 산업화로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 공간이다.

19. <답> ①

<정답 풀이>

<보기>의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므로 영달이 서술자인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③ 백화가 서술자인 1인칭 시점이다.
-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20~25] 독서 - 예술

[지문 분석]

르네상스 이전 노트르담 대성당을 중심으로 전개된 음악인 노트르담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페로탱의 곡은 오늘날 사람에게서 마치 다른 세계의 음악처럼 들릴 것이다. 이 위화감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는 화성 감각의 차이(르네

상스 이전의 음악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듣기에 위화감이 있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에게 화성이란 도미술을 말한다. 하지만 중세에는 도미술이 불협화음이었다. 즉, '미(3도)'가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시험 삼아 피아노로 '도미술'과 '도술'을 비교해 보면, 부드러운 전자의 울림에 비해, 후자는 부드러움이 빠진 어딘가 모가 나 있는 공허한 것으로 들릴 것이다.

1문단: 오늘날과는 다른 화성 체계를 가진 르네상스 이전의 음악

하지만 중세 사람들에게 있어 '도술'의 울림은 제대로 된 것이었다.(오늘날 사람들은 '도술'의 울림을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느낀다.) 중세에서 추구하는 울림은 금욕적이며 준엄하고 위협적인 울림이었다. 음악은 감미로운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음악의 목적을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두지 않음.) 아마도 이런 음악이 사랑받은 것은 당시 사람들의 독특한 음악관에 기인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세의 음악 미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 먼저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중세의 음악은 결코 '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중세에 널리 읽힌 보이티우스의 『음악망요』 이론에서는 음악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2문단: 음악을 즐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중세의 음악관

세 가지 유형의 음악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음악은 뮤지카 문다나(중세 음악의 종류 ①)이다. 이는 '천체의 음악' 또는 '우주의 음악'을 뜻한다. 이것은 천체나 지구, 즉 대우주가 만들어 내는 음악으로, 대우주의 조화를 의미한다.(뮤지카 문다나의 뜻) 그러나 뮤지카 문다나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악이다. 그 다음 단계인 뮤지카 후미나(중세 음악의 종류 ②)는 '인간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정신과 육체, 즉 소우주를 다루는 음악이다.(뮤지카 후미나의 뜻) 이는 우주의 질서에 의해 영향 받는 육체와 영혼 및 그들 각 부분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음악에 의한 이 조율 작용이 이상해지면 병이 걸리거나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뮤지카 문다나와 뮤지카 후미나는 모두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악이다.(뮤지카 문다나와 뮤지카 후미나의 공통점) 다음으로는 가장 낮은 단계인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중세 음악의 종류 ③)가 있다. 이는 '악기의 음악'을 의미하는데, 음향학적 원칙들의 질서 있는 적용에 의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포함한 모든 악기가 만들어 내는,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의 뜻)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음악적 음정의 숫자 비율로 질서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3문단: 음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바라본 중세의 음악관

중세 사람들은 음악을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인 질서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중세 사람들에게 음악은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초월적 질서를 탐구하는 수단이었음.) 그것은 일종의 과학에 가까운 사고이다. 이런 중세의 음악관으로 볼 때, 페로탱의 곡에는 신의 나라의 질서를 소리로 모방한다는 의도

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이 인간이 듣고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페로탱의 곡이 전부 8분의 6 박자로 되어 있는 것 역시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 당시의 음악은 오로지 삼위 일체를 표현하는 3박자 계열로 적혀졌다.

4문단: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 질서를 탐구하고자 했던 중세의 음악

음악의 배후에 초월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은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의 음악과도 관련이 있다. 바흐가 선호한 숫자의 상징, 쇤베르크의 12음 기법, 혹은 바르톡의 황금 분할 등, 이런 서양 예술 음악에는 특유의 수학적 사고가 있다. **음악은 반드시 소리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중세의 음악관)**는 특이한 생각이야말로 중세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서양 예술 음악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5문단: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중세의 음악관

- 주제 :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초월적 질서를 탐구하고자 했던 중세 서양의 음악관
- 해제 : 르네상스 이전의 음악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듣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화성 감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중세의 음악은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초월적 질서를 탐구하고,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음악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서양의 중세 음악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지문 확인]

1문단 : 오늘날과는 다른 화성 체계를 가진 르네상스 이전의 음악

- 르네상스 이전의 음악은 현대적인 감각으로 듣기에 위화감이 있는 이유는 화성 감각의 차이 때문이다.
- 우리에게 화성이란 도미솔인데, 중세에는 도미솔이 불협화음이었음.

2문단 : 음악을 즐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중세의 음악관

- 중세에서 추구하는 울림은 금욕적이며 준엄하고 위협적인 울림이었으며, 음악은 감미로운 대상이 아니었음.

3문단 : 음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바라본 중세의 음악관

- 음악의 유형 ① 뮤지카 문다나
 - '천체의 음악', '우주의 음악'을 뜻함.
 -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음.
- 음악의 유형 ② 뮤지카 후미나
 - '인간의 음악'을 뜻함.
 -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음.
- 음악의 유형 ③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

- '악기의 음악'을 뜻함.
-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음.
- 음악적 음정의 숫자 비율로 질서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임.

4문단 :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 질서를 탐구하고자 했던 중세의 음악

- 중세 사람들에게 음악은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객관적인 질서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것이었음.

5문단 :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중세의 음악관

- 음악을 반드시 소리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특이한 생각은 현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중세의 음악관임.

20. <답> ④

<정답 풀이>

중세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초월적 질서를 탐구하고자 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뒷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1. <답> ⑤

<정답 풀이>

마지막 문단에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에는 서양 음악 특유의 수학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이 12음 기법을 이용하여 만든 그의 음악은 거의 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음악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중세 서양의 음악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쇤베르크의 음악에서 종교적 성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쇤베르크의 음악은 연주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쇤베르크가 연주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주가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 ③ 연주가 불가능한 음악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감상자의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쇤베르크의 음악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22. <답> ⑤

<정답 풀이>

피타고라스의 음률이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다고 해서 현대의 음악이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 ① 피타고라스는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의 하나로 음악을

국어 영역

고 3

들고 있다. 즉, 피타고라스는 ㉠을 음악의 배후에 있는 초월적 질서라고 보고, 음악은 이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는 실제로 인간에 의해 연주되는 음악을 가리킨다.

③ 실제로 연주되는 음악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음악의 배후에 있는 초월적 질서가 잘 구현되었을 때임을 알 수 있다.

④ 특정한 수학적 질서의 비율로 아름다움을 규정하여 한 것은 객관적인 질서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과학적 사고에 가까운 것임을 4문단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23. <답> ②

<정답 풀이>

이 글의 3문단에서 뮤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를 설명하는 “이는 ‘악기의 음악’을 의미하는데, 음향적인 원칙들의 질서 있는 적용에 의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포함한 모든 악기가 만들어 내는,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음향학적 원칙은 르네상스 이전에도 수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금욕적이고 준엄한 음악을 추구했던 중세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우선의 가치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와 달리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즐기고자 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가 음악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는 신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음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의 음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음악을 감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24. <답> ⑤

<정답 풀이>

‘표출’은 ‘겉으로 나타냄’의 뜻이다.

<오답 풀이>

- ① 부각 : 사물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다.
- ② 제출 : 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내다.
- ③ 부여 :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주다.
- ④ 인지 :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다.

25. <답> ④

<정답 풀이>

㉠은 대우주의 조화라는 철학적 원리를 표출하는 것이고, ㉡는 ㉠와 ㉢를 실제적인 연주를 통해 표출하는 것으로 수학적 세계관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는 ㉠이 인간의 차원으로 적용된 것이지만 인간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가장 높은 단계의 음악이고, 그 아래 ㉢와 ㉡가 있다.

③, ⑤ ㉠과 ㉢는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지만, ㉡는 ㉠과 ㉢ 속에 내재해 있는 질서를 연주를 통해 구현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들을 수 있다. 즉, ㉡는 실제로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다.

[26~30] 독서 - 과학

[지문 분석]

환경 오염(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인해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깊은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해양심층수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염류(미네랄)가 풍부하기 때문이다.(해양심층수가 각광받는 이유) 바닷물은 수심 200m(표층수와 해양심층수를 구분하는 기준)를 기준으로 그 위의 바닷물은 표층수로, 그 아래의 물은 해양심층수로 구분된다. 그 이유는 해양심층수가 표층수보다 온도는 10~20℃ 낮고,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밀도가 높아(해양심층수는 표층수보다 온도는 낮고, 염분 농도와 밀도는 높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1문단: 무기염류가 풍부한 해양심층수

일반적으로 바닷속 150~200m 이하로 내려가면 도달하는 태양광량이 수면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전체 태양광 중 최소 1% 이상이 도달하는 층을 유광층(有光層)이라고 하는데,(즉 유광층은 바닷속 150~200m 이내에 해당함.) 이 층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플랑크톤이 살 수 있는 경계층이다. 식물플랑크톤이 없으면 이를 먹고 사는 미생물도 살 수 없어 먹이사슬이 형성되지 않는다. 결국 유광층 아래에는 이 층에서 미처 분해되지 않고 가라앉은 유기물을 먹고 사는 적은 수의 미생물만 존재한다. 그런데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세균 같은 미생물이 감소하기 때문(해양심층수가 청정한 까닭)에 해양심층수는 자연히 청정한 상태가 유지된다.

2문단: 해양심층수가 깨끗한 이유

그런데 해양심층수는 경도가 높아 그냥 먹을 경우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염도를 낮추는 탈염 과정(해양심층수가 식수로 쓰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역삼투법이 사용된다. 물은 투과시키지만 물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이나 분자는 투과시키지 않는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담수* 해양심층수를 각각 넣으면, 담수의 물 분자가 농도가 높은 심층수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 작용이 일어난다. 이때 삼투압보다 10~30배 높은 압력을 삼투압의 반대 방향으로 가하면 심층수의 물 분자가 담수 쪽으로 이동해 해양심층수에 녹아 있는 각종 무기염류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출한 무기염류는 경도를 맞추기 위해 선택적으로 다시 첨가된다. 그 뒤에 자외선 살균을 거치

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

3문단: 해양심층수를 식수로 만드는 과정

물맛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도인데, 경도란 물속에 포함된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이다.(경도의 개념) 보통 경도가 20(센물과 단물을 구분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 ‘센물’, 20 이하면 ‘단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으면 **쌉쌀하거나 텁텁한 맛(경도 20 이상)**이 커지고 경도가 낮으면 **담백한 맛(경도 20 이하)**이 난다. 일반적으로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많으면 쓴맛이 조금 더 강해진다.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경도 범위는 10~100 정도인데, 이보다 높은 것을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고혈압 예방과 항알레르기 작용(식수가 고혈압 예방과 항알레르기 작용과 같은 기능을 지니기도 함.)** 같은 기능성 효과를 위해서이다. 이처럼 해양심층수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생명체에 신진대사에 중요한 무기염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차세대 식수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4문단: 해양심층수의 맛이나 기능성을 조정

*담수: 염분이 없는 물.

- 주제 : 차세대 식수원으로 각광받는 해양심층수
- 해제 : 이 글은 해양심층수가 주목받는 이유와 해양심층수를 식수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에는 인간의 몸에 필요한 무기염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균 같은 미생물도 적다. 그래서 최근에 식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경도가 높아 그대로는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삼투압법을 이용하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진다. 이때 경도로 물맛을 조정할 수도 있고 고혈압 예방이나 항알레르기 작용 같은 기능이 있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해양심층수는 차세대 식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문 확인]

1문단: 무기염류가 풍부한 해양심층수

- 환경오염으로 인해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
- 해양심층수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염류(미네랄)가 풍부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가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의 물로 표층수보다 온도가 10~20℃ 낮고,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밀도가 높아 마치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음.

2문단: 해양심층수가 깨끗한 이유

- 바닷속 150~200m 이하로 내려가면 도달하는 태양광량이 수면의 1% 이하로 줄어들. 태양광량이 적으므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없으며 이를 먹고 사는 미생물도 살 수 없어 먹이사슬이 형성되지 않음.

- 수심이 깊어질수록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세균 같은 미생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는 청정한 상태임.

3문단: 해양심층수를 식수로 만드는 과정

- 해양심층수는 경도가 높아 그냥 먹을 경우 복통을 일으킬 수 있음.
- 해양심층수는 역삼투법을 통해 염도를 낮추는 탈염 과정을 거쳐 식수로 사용됨.

4문단: 해양심층수의 맛이나 기능성을 조정

- 경도는 물속에 포함된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 물맛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 경도가 20 이상일 때 ‘센물’이라고 하며, 경도가 높으면 쌉쌀하거나 텁텁한 맛이 남.
- 경도가 20 이하일 때 ‘단물’이라고 하며, 경도가 낮으면 담백한 맛이 남.
-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많으면 쓴맛이 조금 더 강해짐.
- 경도로 물맛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 예방이나 항알레르기 작용 같은 기능이 있게 만들 수도 있음.

26. <답> ①

<정답 풀이>

해양심층수는 인간의 몸에 필요한 무기염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균 같은 미생물도 적어서 차세대 식수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27. <답> ④

<정답 풀이>

삼투는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 가는 현상이고, 역삼투는 그 반대의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는 용매는 물이므로 역삼투 현상이 일어나면 해양심층수에 있는 물 분자가 담수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때 각종 무기염류는 반투막에 걸려 이동할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해양심층수는 경도가 높기 때문에 담수보다 농도가 높다.
- ②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으면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 ③ 해양심층수는 경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먹을 경우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 ⑤ 삼투압보다 20배 정도 높은 압력을 가하면 역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즉, 해양심층수에 있는 물 분자가 담수 쪽으로 이동해 간다.

28. <답> ④

<정답 풀이>

물의 경도가 10~100 정도이면 사람들이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

국어 영역

고 3

긴다. 그래서 보통 해양심층수를 식수로 가공할 때 여기에 맞춘다. 그런데 경도를 100이 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고혈압 예방이나 항알레르기 작용 같은 기능성 효과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경도 50~70인 <보기>의 제품을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경도가 20 이상일 경우는 센물이다.
- ② 칼슘염보다 마그네슘염이 많으면 쓴맛이 조금 더 강하다.
- ③ 경도는 물속에 포함된 칼슘염과 마그네슘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칼슘염을 더 첨가하면 경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 ⑤ 경도가 높은 물을 마시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

29. <답> ②

<정답 풀이>

유광층 아래는 태양광이 1%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없다.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식물플랑크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먹이사슬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세균 같은 미생물이 감소하여 깨끗하게 된다. 그런데 해양심층수는 유광층 아래에 있기 때문에 표층수보다 세균이 적다. 또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염류는 풍부하다.

<오답 풀이>

- ① 해양심층수가 표층수보다 온도가 10~20℃ 낮다.
- ③ 해양심층수는 표층수와 달리 먹이사슬이 형성되지 않는다.
- ④ 유광층이 존재하는 곳은 표층수이다.
- ⑤ 해양심층수와 표층수는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는다.

30. <답> ⑤

<정답 풀이>

㉠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도 구명조끼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 ① '기준이 될 만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다른 것과 비교하여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1~34]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가)

흥보기가 싫다마는 저 부인의 거동 보소
시집간 지 석 달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계엄할사* 시아버니 암상할사* 시어미라.
고자질에 시누의와 엄숙하기 만동서여.
요악(妖惡)한 아우 동서 여우 같은 시앗년에
드세도다 남녀 노복(男女奴僕) 들며나며 흙구덕에
남편(男便)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十伐之木)* 되었에라.]

[([] : 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열거함.)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살이 못 하겠네 [간숫병을 기울이며(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치마쓰고 내닫기와 붓짐 싸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어 승(僧)들이나 따라갈까
긴 장죽(長竹)이 벗이 되고 들구경하여 볼까

문복(問卜)(점을 쳐 길흉을 물음.)하기 소일이라] ([] : 힘든 시집살이에 따른 여자의 행동)

- 작자 미상, 「용부가」

- *계엄할사: 마음이 컴컴하고 욕심이 많기도.
- *암상할사: 셈하는 마음이 많다.
- *십벌지목(十伐之木):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여럿의 등쌀에 기어코 마음이 그렇게 쓸렸다는 뜻.

▣ 핵심정리

- 갈래 : 가사, 서민가사, 계녀가사
- 작자 : 미상(조선 후기)
- 성격 : 비판적(시적 화자가 말하고 있는 부인은 나름대로 시집살이를 힘겹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인의 잘못된 행동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적 화자는 부인을 비판적을 바라보고 있다.), 교훈적, 풍자적, 경세가
- 표현 : 열거법, 과장법
- 출전 : 경세설
- 제재 : 시집살이
- 주제 : 여인들의 삶의 갈등과 고뇌, 여성들의 비행 비판
- 의의 : <우부가(愚夫歌)>와 짝을 이루는 가사로, 여성의 지위와 갈등을 역설적으로 나타낸 작품
- 구조 : 용부의 행동을 열거식으로 구성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에 표현된 여인의 모습이 당대 여인들의 일반적 생활은 아니다. 이 시대 여인들의 생활과 감정을 과장하여 현실적 비난을 피하려는 의미도 이 속에는 숨어 있다. 감정의 직설적 표현을 통하여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순연한 토속미와 삶의 고달픔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 보자.

내용이 다소 과장되고 표현이 속된 것도 있지만 사실적인 묘사로 토속미가 풍긴다. 풍자와 유머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의 흥을 잡아낸다는 서두와 점치기와 치장으로 소일하고 불공과 무당 소경 푸닥거리로 위업을 한다는 것은 실감나는 표현이며, 끝에 가서 저 거동이 그른 것은 알면

고치려고 힘쓰라는 것은 이 작품이 경세(經世)와 훈민(訓民)을 염두에 둔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조선 후기의 가사문학은 서민들의 수준으로 넘어오면서 풍자성을 띄게 되었는데, 이 작품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여성들의 비행을 열거하고 있어 서민층의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는 이 시대 여인들의 생활과 감정을 과장하여 현실적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용렬한 여자의 갖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바람직한 행실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우치고자 한 가사이다. 전체적으로 과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그러면 서도 생생한 실감을 만들어내는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그 같은 사실적 산문 정신이 가사의 산문화를 이끈 기본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이 작품을 지배하는 미의식은 희극미(골개미)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전 가사(주로 양반 가사)의 미의식과는 전혀 다른 서민적 미의식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지문 분석] (나)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粉)고개로 형님 온다.(4음보 율격. 대구법을 통해 운율 형성)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게?
 ▶ 사촌 동생의 말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앞발에는 당추(唐椒)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동글동글 **수박 식기(食器)**(그릇이 수박처럼 동글다는 것을 표현)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 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짚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설의법)
 시아버니 **호랑새(호랑이 같이 무서운 새. 사람을 새로 나타냄)**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남의 허물을 잘 고해 바치는 새라는 뜻. '할림'은 '할리다(참소하다)'에서 온 말)**요 시누 하나 **뽕죽새(성을 잘 내는 새)**요,
 시아지비 **뽕중새(무뚝뚝하여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요 남편 하나 **미련새(미련하고 어리석은 새라는 말로 남편의 모자람을 말함.)**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씩는 새(속이 썩는 새)**세.
 귀먹어서 삼년이요 눈 어두워 삼년이요
 말 못해서 삼년이요 석 삼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예쁘지 않은 여자를 비유한 말)**이다 되었는데.

(중략)

▶ 언니의 신세 한탄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개 머리 **소(沼) 이겼네.**(연못을 이루었네) 그것도 소(沼)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언니의 한맺힌 탄식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핵심 정리

- 갈래 : 민요, 서정 민요, 부요(婦謠)
- 성격 : 여성적, 서민적, 풍자적, 해학적
- 형식 : 민요, 부요로 4음보(音步)<안정되고 균형잡힌 호흡>의 연속체(連續體)형식으로 후렴구가 없다. 4음보의 가사체, 내간체, 대화체
- 성격 : 부요(婦謠). ≒당대 여성들의 보편적 삶의 체험, 혹은 정서의 표현.
- 표현 : 사촌 자매간의 대화 형태, 반복, 대구, 대조, 열거 등 다양한 형태 사용
- 주제 : 시집살이의 한과 체념
- 구성 : 기·서·결(起·敍·結)의 3단 구성
 - 기 : 형님 온다 형님 온다 -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마중)
 - 서 :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게? - 두 쪽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고된 시집살이의 묘사)
 - 결 :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개 머리 소(沼) 이겼네 - 쌍쌍이 때 들어오네. (해학적인 체념)
- 출전 : 충남 예산 지방 노래 채록
- 의의 : 전형적인 부요의 하나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이 절실하게 표현됨.

■ 이해와 감상

시집살이 노래는 여성들이 부르던 민요, 즉 부요(婦謠)이다.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겪는 서민 여성의 고통과 좌절, 허무와 애환 등 한스러운 삶이 적나라하게 반영된 민요이며, 한국민요의 정화라 할 만큼 삶의 진솔함과 소박함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시집살이 노래는 전국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으며,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경상북도 경산 일대에서 채록한 이 노래는, 평범한 일상어로 되어 있으면서도 언어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으며, 짙은 한(恨)과 함께 해학성이 응축되어 있는 등 높은 문학성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민요에 쓰이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촌 자매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각 행마다 대구와 대조, 반복과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취한 4음보의 율격 형태는 3, 4음절 정도

국어 영역

고 3

크기의 소리마디 넷이 모여 한 행을 이루어, 매우 안정되고 균형 잡힌 호흡을 가지기 때문에 느릿한 가락으로 길게 이어지는 민요와 가사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여러 시대 식구와 자기 자신을 새에 비유하고, 자식들을 오리, 거위에 비유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이런 다양한 표현은 이 민요가 구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것이다.

[지문 분석] (다)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나빠) 벽 바을(부엌 바닥)** 구르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리가 갑세 쳐 온 며느리가. 밤나무 석은 등걸에 휘초리 나니긋치 양살피신* 식아바님, 벗 뵈 싯쫑긋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삼 년(三年) 겨론 망태에 새 송곳부리긋치 썩죽흐신 식누의님, 당(唐)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긋치 식노란 윗곳긋튼 피쫑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시집살이를 괴롭게하는 시대 가족들을 직유법과 열거법으로 표현함.)

[**건 밧티 메곳(착하고 예쁜 자신을 비유)** 곱튼 며느리를 어디를 낮바 흐시논고.]([]: 설의법)

- 작자 미상

*양살피신: 매서운
*되종고신: 말라빠진

▣ 핵심 정리

- 종류 : 사설 시조, 원부가(怨婦歌)
- 성격 : 비판적 해학적
- 제재 : 시집살이
- 주제 : 며느리의 원정(怨情), 며느리를 구박하는 세태 비판

▣ 현대어 풀이

식어머님, 며느리가 나쁘다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 대신으로 받은 며느리인가, 무슨 물건 값으로 데려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석은 등걸에 난 휘초리와 같이 매서운 시아버님, 별을 쥔 쇠뿔같이 말라빠지신 식어머님, 삼 년간이나 걸려서 엮은 망태기에 새 송곳 부리같이 뾰죽하신 식누이님, 좋은 곡식을 심은 밭에 돌피(나쁜 품질의 곡식)가 난 것같이 셋노란 외꽃 같은 피똥이나 누는 아들(너무 어려서 사내 구실을 하지 못함을 풍자한 것) 하나 두고,
 기름진 밭에 메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 하시논고.

▣ 이해와 감상

봉건 제도(封建制度)에 있어서 며느리의 위치를 짐작하게 하는 작품이다. 중장이 평시조 한 수보다 더 긴 것으로, 사설 시조의 형태적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대가족 제도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노래한 것으로, 며느리의 원정(怨情)이 진솔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아버지는 '알살피서'고

식어머니는 '되종고시'고 식누이는 '꼬죽흐고' 신랑(新郎)은 '시노란 윗곳긋튼 피쫑 누는 아들'로 표현하였듯이 신랑을 어리고 못났다고 비꼬면서 한 편으로는 며느리의 원망스러운 심정을 노래했다. 이러한 부녀자의 원정(怨情)은 내방 가사나 민요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부요(婦謠) 가운데 '시집살이'를 주제로 한 것은 거의 일맥 상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작품에서 사설 시조가 서민 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1. <답> ①

<정답 풀이>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옛 여인들의 시집살이를 소재로 삼고 있다. 더구나 봉건 제도 아래에서의 시집살이기에 어렵다 못해 한스러움을 드러낼 정도다. 다만 이러한 시집살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가)는 용렬한 태도를 보이는 데 비해, (나)와 (다)는 해학적으로 이겨 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32. <답> ②

<정답 풀이>
 (나)의 시적 화자는 시집살이 10여 년에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었다고 했으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화자의 처지를 그나마 위로하고 있는 것은 거위, 오리에 비유되고 있는 자식들이다. 자식들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33. <답> ③

<정답 풀이>
 (가)의 첫 구 ㉠은 이 작품의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즉, 흥보기는 싫지만 저 부인의 거동을 보라는 말에서 부인의 흥볼 만한 거동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흥보기가 싫다마는'이라는 표현 속에 저 부인의 행동에는 흥볼 만한 것이 많다는 서술자의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첫구는 독자에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4. <답> ④

<정답 풀이>
 (나)의 시적 화자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있지만, 감정의 절제나 현실 극복의 의지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해학적인 표현으로 보아 아무리 시집살이가 어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35~37] 화법

[지문 분석]

지난 주말에 저는 **남산에 있는 '재미로'와 '재미랑'(사전 답사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 동아리 시간에 그곳으로 우리 만

화 동아리 회원 1, 2학년 30명이 체험 활동을 가는 것 알고 있지요? (대답을 듣고) 예,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도함. 청중과 상호작용함.) 그래서 동아리 회장인 저랑 총무(사전 답사를 다녀온 사람)가 함께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파악하고 체험 활동의 동선을 확인(사전 답사의 목적)해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다음 주에 체험 활동을 가서 길을 잃거나 좋은 볼거리를 놓치고 온다면 아쉬울 테니까요. 또한 다음 주 체험 일정에 넣은 그곳의 행사 계획 등도 안내해 드릴 테니 미리 자료도 찾아보고 잘 준비해서 체험 활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청자가 체험 활동을 위해 미리 자료를 찾아볼 것을 조언하고 있음.)

혹시 '재미로', '재미랑'에 가 본 적 있는 친구가 있나요? (대답을 듣고) 이미 가 본 친구도 두 명이나 있는데요. 언제 가 보셨나요? (대답을 듣고) 한 명은 이 년 전에, 또 한 명은 작년에 다녀왔군요.(질문을 통해 청중의 능동적 듣기를 유도하고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음.)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다시 가 보면 많이 변화된 모습에 놀랄지도 모릅니다.(최근 변화를 언급하며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 최근 일이 년 사이에 지역 주민의 참여로 거리가 많이 정비되고 알찬 볼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가 보았는데, 만화에 관심이 있고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가면 상상 공원이 보이는데요.(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안내함.) 바로 거기에서 '재미로'가 시작됩니다. '재미로'란 서울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로 애니 타운이 조성된 남산 일대를 잇는 만화의 거리 이름입니다. 제가 직접 가 보니 인위적인 대형 거리 조성 사업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의 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작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 문화 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함.) '재미로' 안에는 기존 정류장을 활용해서 조성된 거점 공간인 상상 공원, 만화 삼거리, 사연 우체국, 재미 운동장, 만화 언덕 등 5개의 만화 문화 정류장과 주변의 이색 가게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만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연출해 놓은 상상 공원도 예쁘고, 만화 콘텐츠 프레임으로 경관을 구성한 만화 삼거리도 흥미로웠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 만화 삼거리에는 우리 동아리에서 함께 감상하고 제작해 보았던 작품들도 많이 보이지요? 얼마 전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어서 우리가 동아리 시간에 만화 이어 그리기 활동을 했던 ○○작품도 보여서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 옆에 위치한 사연 우체국은 시민의 일상 사연을 받아 만화가가 직접 만화로 표현한 벽면 갤러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더 걸어가면 만화 거리 중간 교차 지점을 만화 문화 공간으로 유도한 재미 운동장에는 만화 콘텐츠를 연계한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동아리 단체 사진을 재미있게 연출해서 찍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재미로'의 출발점에서부터 걸어가는 동선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그곳에서 체험 활동할 청중의 이해를 돕고자 함.) '재미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자 시민들의 참여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재미랑'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건물로, 특히 2층에는 다양한 시·문·화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다음 주에는 서울 풍경과 첨단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만화 전시가 기획되어 있다고 하니, 그동안 이론으로만 접했던 홀로그램 큐브나 영상물 등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모임 공간과 전문 자료실이 있어서 다양한 만화 예술 분야를 직접 체험하기에 좋습니다.(건물의 구성 중 동아리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까지 이어진 옹벽면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만화언덕입니다. 한국 만화 100선 중 40개 만화 캐릭터의 콘텐츠 기부를 통하여 상징적인 공간을 만든 곳인데, 옹벽면을 따라 작품들이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 되면 야간 조명이 켜져서 만화 캐릭터와 조명의 연출로 매우 예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갤러리 작품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찾아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는 '재미로' 내 골목 사이사이에 있는 만화 골목들입니다. 주민과 상인들이 집과 건물 벽면을 내어 주고, 만화가들은 만화 이미지를 재능 기부하여 슬럼화된 공간을 꾸민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들렀던 슈퍼마켓 주인아주머니는 동네가 예뻐지니까 손님들도 늘었다(지역 주민의 말을 인용함.)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주 우리 동아리의 체험 활동 시간까지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을 다시 찾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을 기록하는 등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철을 이용해야 하니 교통 카드도 잊지 마세요.

- 핵심 정리
- 갈래 : 답사 보고
- 주제 : 남산에 있는 '재미로'와 '재미랑' 사전 답사 보고
- 특징
 -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중과 상호작용함.
 -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도움.

35. <답> ③
<정답 풀이>
답사 장소 선정에 대한 아쉬움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동아리 회원들에게 체험 활동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것을 조언하는 것일 뿐 태도 변화 촉구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국어 영역

고 3

- ① 답사 장소에 가 보았던 인원을 파악하고, 그 시기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자의 사전 이해 수준을 점검하고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많이 변화된 모습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최근 일이 년 사이에 ~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에서 답사 장소의 최근 변화를 언급하며 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자신이 맡은 동아리 회장의 직책을 언급하며 자신과 총무가 동아리 부원들에게 교통편과 동선, 활동 내용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사전 답사하여 효율적인 체험 활동이 되도록 하려고 했다는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⑤ 1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청자가 체험 활동을 위해 미리 자료를 찾아볼 것을 조언하고 있다.

36. <답> ⑤

<정답 풀이>

만화 동아리의 체험 활동을 위한 답사가 주제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청중인 동아리 회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며, 답사 목적과 의의와도 연결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재미로’의 출발점에서부터 걸어가는 동선에 따라 설명함으로써 그곳에서 체험 활동할 청중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② ‘재미로’ 중에서도 만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집중하여 설명한 것은 청중의 흥미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답사지에서 찍어 온 사진을 보여 주며 동아리 회원들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으므로, 청자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남산 아래의 명동과 남대문 일대, 남산의 한옥 마을 등 주변 명소에 대한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사 보고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37. <답> ④

<정답 풀이>

5문단에서 ‘재미랑’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방문할 다음 주에는 서울 풍경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만화 전시가 기획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상상 공원’에서 그림자와 만화 콘텐츠를 이용한 연출이 좋았다고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 ② ‘사연 우체국’은 시민의 사연을 받아서 만화로 제작한다고 했으므로 사연을 접수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 ③ ‘재미 운동장’의 포토존에서 동아리 단체 사진을 재미있게 연출해서 찍어 보자고 제안했으므로, 그곳의 만화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된 소품을 준비하려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다.
- ⑤ ‘만화 언덕’에서 야간 조명이 켜지는 시간에 맞춰 시간별 이동 계획을 고려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38~41]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올해 10월에 열릴 체육 대회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 학교 체육 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토의 주제)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금까지 열렸던 체육 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자 1: 작년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그다지 좋지 못하네요, 체육 대회의 종목이 다양하지 않은 것(작년 체육 대회의 문제점)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는 오전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단축 마라톤, 오후에는 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달리기 종목만 진행되니 학생들의 호응이나 만족도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단축 마라톤의 경우,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다 보니,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불평하며 참여하는 시늉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작년 체육 대회의 문제점)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3: 다들 알겠지만 단축 마라톤은 학교에서 벗어나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보니 안전 문제(작년 체육 대회의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옆에서 달리는 차량을 의식하여 제대로 달리는 것도 어려워 학생들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 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 대회 종목이 적고,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종목이 있으며, 안전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참여자 1~3의 의견을 요약·정리함.) 의견을 분석해 보면 결국 단축 마라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는 것(단축 마라톤의 의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축 마라톤을 그동안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체육 대회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여자 1: 네, 그동안 단축 마라톤을 진행하다 보니 오전에 다른 종목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요, 만약 단축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면 오전에 더 많고 다채로운 종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단축 마라톤이 체육 대회

에서 제외될 경우 예상되는 기대 효과) 예를 들어 축구나 피구, 농구 등 종목이 다양화되면 그만큼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 2: 종목이 다양해지면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가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반 대항 단체 줄넘기 또는 단체 줄다리기를 신설했으면 합니다.**(단축 마라톤 대신 체육 대회에 추가했으면 하는 종목) 그러면 **체육 대회의 취지**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자 3: 단축 마라톤 대신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하루 동안 반 대항 경기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학교 측에서 **난색(꺼리거나 어려워하는 기색)**을 표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부정적 반응) 그래서 말인데요, **반 대항 종목의 예선전을 체육 대회 전에 미리 하면 어떨까요?**(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참여자 2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함.)

참여자 1, 2: 네, 좋습니다.

학생회장: 네, 지금까지의 토의를 종합해 보면, **단축 마라톤을 이번 체육 대회에서 제외하는 대신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하게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 반 대항 종목은 진행 일정을 미리 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참여자 1~3의 의견을 요약·정리함.) 그럼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핵심 정리
- 갈래 : 토의
- 주제 : 우리 학교 체육 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특징
 - 학생회장이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정리함.
 - 예상되는 부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

[지문 분석] (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김○○입니다.(건의문에는 인사말과 자기 소개가 들어가야 함.) 올해 10월에 교내체육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는 전교생이 모두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건의문을 쓰게 된 계기를 밝힘.)

우리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토의 참여자들은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가 달리기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참여자 1의 의견) 특히 오전에 진행되는 단축 마라톤에는 체육 대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로부터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참여자 2의 의견) 실제로 작년 대회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걷다시피하며 반환점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단축 마라톤 코스가 교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참여자 3의 의견) 관할 지역 경찰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기는 했지만,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생들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생회에서는 **단축 마라톤 경기를 폐지하고 대신 축구, 피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을 진행하며,** (참여자 1의 의견) **대회의 취지에 맞게 단체 줄넘기나 단체 줄다리기와 같은 반 대항 경기의 신설을 건의합니다.**(참여자 2의 의견)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모든 경기를 하루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를 하실 수 있으나, 이는 예선전은 체육대회 전 방과 후에 틈틈이 진행하고, 결승전만 당일에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참여자 3의 의견)

저희의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리면서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적으로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건의 내용이 수용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맺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의 말을 전하며 건의문을 마무리함.)

- 핵심 정리
- 갈래 : 건의문
- 주제 : 우리 학교의 체육 대회의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
- 특징
 - 건의 내용이 수용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함.

38. <답> ④

<정답 풀이>

학생회장은 세 번째 발언에서 논의를 종합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논의할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학생회장의 첫 번째 발언의 ‘우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리 학교 체육 대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의 두 번째 발언의 ‘체육 대회 종목이 적고,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종목이 있으며, 안전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

국어 영역

고 3

가 낮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회장의 두 번째 발언의 ‘만약 이 종목을 체육 대회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모든 학생이 체육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학생회장의 첫 번째 발언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므로 건설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답> ⑤

<정답 풀이>

[B]에서 참여자 3은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하여 참여자 2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 대항 경기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예선전을 미리 하면 어떻까라고 제안하여 참여자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A]에서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라는 참여자 2의 질문은 학교의 체육 대회 진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참여자 1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다.
- ② [A]에서 참여자 2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하여 참여자 1의 의견에 동의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자 1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에서 ‘다들 알겠지만~’이라는 참여자 3의 발화에서 참여자 1, 2와 공유한 정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1, 2가 언급하지 않은 안전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참여자 1, 2의 의견을 다시 언급한 것은 아니다.
- ④ [B]에서 참여자 2는 종목의 다양화를 제안한 참여자 1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반 대항 경기의 신설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40. <답> ③

<정답 풀이>

(가)에서 참여자 1은 종목의 다양화를 제안했고, 참여자 2는 추가로 반 대항 종목 신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나)의 3문단에서 이를 반영하여 교내 체육 대회에 진행 가능한 운동 종목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 특징을 설명하거나 그런 특징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참여자 1은 체육 대회가 달리기 종목만 진행되어 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1문단에서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여 건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 참여자 2는 단축 마라톤에 강제로 참여시키다 보니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늉만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2문단에서 실제로 작년 대회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건다시피 하며 반환점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되돌아왔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교내 체육 대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 (가)에서 참여자 3은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하루 동안 반 대항 경기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할 것 같다고 하며 예선전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3문단에서 반 대항 종목의 예선전은 체육 대회 전 방과 후에 틈틈이 진행하고, 결승전만 당일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보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 참여자 1은 종목이 다양화되면 그만큼 많은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참여자 2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반 대항 종목을 신설하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4문단에서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체육 대회의 취지도 살리면서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41. <답> ①

<정답 풀이>

(ㄱ)의 ㉠에서 줄다리기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에서 원래 체육 활동을 싫어하여 체육 대회에 불만족한 학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체육 활동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줄다리기는 선호한다는 내용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② ㉠에서 학생들이 줄다리를 선호하는 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ㄴ)에서 단체 경기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여서 단체 행사에 적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단체 경기인 줄다리를 진행하면 모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 체육 대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기 종목을 선호함을 알 수 있으며, ㉡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경기가 없어 체육 대회에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대회의 종목을 다양하게 구성하면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④ ㉡에서 학생들이 단축 마라톤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때문에 체육 대회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체육 대회에서 단축 마라톤을 제외하면 기존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 체육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⑤ (ㄴ)에서 단체 경기는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반대항 경기가 신설되면 반별 협동심을 고취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42~45] 작문
[지문 분석]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유명한 대사를 언급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셰익스피어의 비극인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다.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는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는 소리들로 가득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티셔츠나 가방 고르기 같은 사소한 것부터 진로 선택 같은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또는 그에 대한 반응들도 다양하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대신 결정을 내리며 자신이 택한 것을 따르기를 **중용(잘 설명하고 달래어 권함.)**하는 반응도 있고, 쉽게 선택하기 힘든 문제라며 공감, 응원하는 반응도 있다. 그런가 하면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 못 끼우게 된다.’**(속담을 활용함.)라는 **명분(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표면상의 이유)**을 내세워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과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다르며 최선의 결정은 고민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또 ‘최고의 결정은 결정의 순간에 달려 있다.’라는 말도 한다. 하지만 결정에 대한 만족은 결정의 순간보다 결정한 후에 자신의 결정이 반영되는 과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정 그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 때문에 결정했는지 목적은 잊어버리게 된다. **[결정을 미루는 일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에게 결정을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자신의 중요한 선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결정을 회피하고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돌리게 되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결정을 회피할 때의 문제점)]**([]: 문답법)

[그러면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사회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 전문가들은 **개인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사회 현상이 생긴 이유 ①)**이라고 진단한다. **[[]: 문답법]** 선택지가 많을수록 다른 걸 선택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는 것은 **현대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인증과 자기 노출에 익숙하여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항상 의식한다는 점(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사회 현상이 생긴 이유 ②)**이다. 그리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

관념(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사회 현상이 생긴 이유 ③)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선택의 순간에 늘 망설이게 된다면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선택지를 줄이자.(쉽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 ①)** 그러려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5만 원 이하의 제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상품평이 가장 많은 제품 중에서, 옷을 고를 때는 5개 이하의 매장을 둘러보고 그중에서 선택하겠다는 식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취향과 욕구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쉽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함.)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자.(쉽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 ②) 그러려면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찾아야 한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결정의 순간에 타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만의 행복 기준이 없으면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기 어렵다.

셋째, **자신의 결정에 미련을 갖지 말자.(쉽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 ③)**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예방 주사를 맞은 듯이 생각하고 이번의 결정을 발판 삼아 다음에 더 좋은 결정을 내리면 된다.

끝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깨끗하게 결정을 내린 투쟁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자.(쉽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 ④)** 그러면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빠른 결정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스스로 선택한 일은?’, ‘나에게 칭찬할 일은?’, ‘내일 결정할 일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면 자신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동시에 내일 할 결정을 예고해 주는 일과표가 되기 때문이다.

■ 핵심 정리

- 갈래 : 논설문
- 주제 : 결정을 회피할 때의 문제점과 쉽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
- 특징
 - 유명한 대사 및 속담을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쉽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함.

42. <답> ④

<정답 풀이>

(가)에서 6종류의 잼이 있던 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30%가 잼을 샀지만 24종류가 있던 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3% 정도밖에 사지 않은 이유는 잼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에서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매달리며 ‘좋아요’에 의지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는 ㉠과 (나)는 ㉡과 관련이 있다.

국어 영역

고 3

43. <답> ③

<정답 풀이>

③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결단의 순간들이 많이 생긴다.'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용감한 심장'이라는 비유적 표현, '~을 명심하자.'라는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독자의 인식 전환을 권유하고 있다.

44. <답> ⑤

<정답 풀이>

문맥상 ㉔는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45. <답> ①

<정답 풀이>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끼우게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과 결정을 회피하는 것은 다르며 최선의 결정은 고민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에서 일반적인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6~50] 언어

46~47번 언어 이론: 피동, 사동

* 피동 표현: 주체가 제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이 의미 관계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각각 능동문과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에는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이 있다.

① 파생적 피동문(피동사에 의한 피동문)

- 능동사 어간에 피동 접미사를 결합시키거나, 특정 명사에 피동접미사를 결합시키면 피동사가 된다.

-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되-'

② 통사적 피동문('-아/어지다, -게 되다'에 의한 피동문)

- 능동사 어간에 연결어미 '-아/어' 또는 '-게'를 연결한 후 각각 피동 보조용언 '지다'와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문을 만든다.

* 사동 표현: 주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 주체가 다른 주체나 대상에게 행동하게 하는 것을 사동이라 하며, 이러한 의미 관계가 표현된 문장을 주동문과 사동문이라 한다.

① 파생적 사동문(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 주동사 어간에 사동 접미사를 결합시키거나, 특정 명사에 사동접미사를 결합시키면 사동사가 된다.

- 사동 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 '-시키다'

② 통사적 사동문('-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능동사 어간에 연결어미 '-게'를 연결한 후 각각 사동 보조

용언 '하다'를 결합하여 사동문을 만든다.

46. <답> ③

<정답 풀이>

윗글의 명사 '먹이'나 '늪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먹이'와 '늪이'의 '먹-'과 '늪-'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설명에 기대어 볼 때, ㉔ '늪이'의 '늪-'은 '먹-'과 '늪-'처럼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오답 풀이>

① 윗글에서 '늪이다'의 어간 '늪이-'는 '늪다'의 어간 '늪-'과 구별된다는 설명에 비추어 볼 때, ㉔ '비위'의 어간 '비우-'는 '빈다'의 어간 '비-'와 구별된다.

② ㉔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지만 명사가 아니라 부사이다. '높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산의 높이가 궁금하다.' 정도로 쓰인다.

④ 윗글의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에 비추어 볼 때, ㉔ '꿇었다'의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한다.

⑤ 윗글의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설명에 비추어 볼 때, ㉔ '오시기'에는 '-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때의 '-기'는 접미사가 아니다. '오시기'에서 '-기'는 명사형 어미이며, 따라서 '오시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47. <답> ④

<정답 풀이>

㉔은 동사 '숨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㉕은 동사 '감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동사 '울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㉕은 동사 '돌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② ㉔은 동사 '놓다'에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㉕은 동사 '남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③ ㉔은 동사 '누르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㉕은 동사 '찢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⑤ ㉔은 동사 '날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㉕은 동사 '말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48번 언어 이론: 담화에서의 상황 맥락

1. 담화의 개념

발화	머릿속의 생각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문장 단위로 나타난 것
----	--

답화 |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

2. 답화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이(글쓴이) • 듣는 이(읽는 이) • 주고받는 내용(말, 글) • 맥락(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배경이나 환경)
-------	--

3. 맥락의 종류

상황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 말하는 이(글쓴이)와 듣는 이(읽는 이)의 처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적·공간적 상황, 주제, 의도, 목적 등을 포함함.
사회·문화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 이념, 공동체의 가치, 지역, 세대, 다문화 등을 포함함.

4. 의사소통에서 맥락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답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맥락을 고려해야 답화의 의미를 이해하며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

5.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화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말하는 이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말, 세대에 따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음을 알고 문화적 차이, 세대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48. <답> ③

<정답 풀이>

우체국의 위치를 궁금해하며 우체국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는 질문에 학교 앞 사거리에 있다는 답을 한 것은 언어적 표현과 실제 발화가 전달하는 의미가 일치하는 대화로 볼 수 있다. 이 대화에서는 화자가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생산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B가 '지호가 아침에 타고 온 자전거는 도서관 앞에 있던데.'라고 진술한 것에는 지호의 자전거는 보았으나 지호는 보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실제 발화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예이다.

② B가 '약을 집에 놓고 나왔지 뭐예요.'라고 답을 한 것은 약을 먹지 못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실제 발화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④ B가 '뭘 더 먹기에는 난 배가 너무 불러.'라고 답을 한 것은 저녁을 먹을 생각이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실제 발화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⑤ B가 '나 어제 아파서 결석했어.'라고 답을 한 것은 선생님께서 어제 내 주신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실제 발화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49번 언어 이론: 대용 표현

* 대용 표현: 답화에서 앞에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다시 가리키는 것을 대용 표현이라고 한다.

예) '도서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줄 알고 거기에 갔는데 없더라.'에서 '거기'가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 대용 표현에는 지시 표현에 사용되는 대명사 가운데 주로 '이'와 '그' 계통의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잘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용 표현은 화자 또는 청자의 말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인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로부터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과 구별된다.

49. <답> ⑤

<정답 풀이>

㉠은 민석이가 경험한 진로 체험 활동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의 '지난번'은 효창과 민석이 과거에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때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두 답화자는 모두 알고 있는 때이다.

② ㉢의 '거기'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민석이 진로 체험 활동을 다녀온 곳을 가리킨다.

③ ㉣의 '그때'는 바로 앞에 나온 말에 대한 대용 표현으로 '며칠 전'을 강조하듯이 가리킨다.

④ ㉤의 '그거'는 '진로 체험 활동이 재미없을 거 같다고 민석이 말했다'를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50번 언어 이론: 자동사와 타동사

* 자동사: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작용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 타동사: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50. <답> ③

<정답 풀이>

중세 국어 예문인 '큰 믰스물(므슴+을) 여러(열-+-어)'와 '번개 구르물(구름+을) 호터(홀-+-어)', 현대 국어 예문인 '큰 마음을 열어'와 '번개가 구름을 흠어'에서 '열다'와 '흠다'의 목적어가 모두 쓰였으므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열다'와 '흠다'는 모두 타동사로 쓰였다. 또한 중세 국어 예문인 '自然히 믰스미(므슴+이) 여러(열-+-어)'와 '散心은 호튼(홀-+-은) 믰스미라(므슴+이

국어 영역

고 3

51

라)에서 ‘열다’와 ‘훔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였다. 그러나 현대 국어 예문에서 ‘열다’와 ‘훔다’는 ㉠와 ㉡의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목적어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열-+-리-+-어)’와 ‘산심은 훔어진(훔-+-어지-+-ㄴ) 마음이다.’에서처럼 목적어가 없을 때에는 피동 표현으로 바뀌어 쓰임을 통해 자동사로는 쓰이지 않고 타동사로만 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이다.

[51~53] 매체

[지문 분석]

(가)

감염학회 “1~2주 후 일일확진 1000명...거리두기 격상해야”(표제. ‘격상해야’를 통해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찬성하는 관점의 기사임을 알 수 있음.)
 - 11개 전문학회 성명서 "유행 악화 가능성 높아"
"중환자 병상 급속 소진" 예측...방역 강화 요청(부제)



(시각 자료 제시)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1개 전문학회는 1주일~2주일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20일 경고했다. 이들 11개 학회는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감염 관련 11개 전문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거리두기 방안은 이전에 비해 완화한 기준으로 개편돼 전파 위험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여 제시 함.)

이어 "한국역학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일일 감염재생산수는 1.5를 넘어서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일이 경과하면 일일 확진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재 코로나19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학적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는 확진자 증가, 이를 통한 추가 확산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개 전문학회는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해 방역 조치는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해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략)

NEW1뉴스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2020-11-20

(나)

거리두기 격상 놓고...정부 "아직 일러" vs 전문가 "너무 느려"(표제.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찬반의 관점을 모두 제시함. 중립적임.)



(시각 자료 제시)

정부는 오는 29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여부를 내놓을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인 동일 조치로서 규제를 내릴지 말지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략)

세계일보 박유빈 기자 2020-11-28

(다)

거리두기 격상에 사라지는 일자리...향후 취업 전망은(표제.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문제점을 표제에 제시함으로써 거리두기 격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기사임을 알 수 있음.)



(시청각 자료 제시.)

동영상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뷰 내용인 기사를 영상으로도 볼 수 있게 함.)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곳을 하나만 꼽으려면, 노동시장이 자주 거론됩니다. 경제 충격이 서비스업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와 연동된 종업원의 실직까지 겹쳐 실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우리 물건을 사 줄 중국이 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추가 타격이 많지 않겠지만 고사 위기에 놓인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정부가 3단계 격상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또 3단계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지 먼저 따져 봐야 할 겁니다. 오늘(16일) 이슈분석에서는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Q.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고용동향 발표가 있는 주간입니다. 앞서 그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더 나빠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9만명 증가, 이 정도면 코로나 19 이전의 증가세와 비슷하거든요. 그에게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SBS 이광호 기자 2020-12-16

▣ 핵심 정리

■ 갈래 : 인터넷 기사

■ 주제 : 거리두기 격상

■ 특징

- 동일한 제재에 대한 여러 관점을 드러냄.
- 표제와 부제 등을 통해 매체 자료 생산자의 관점을 드러냄.
-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함.

51. <답> ③

<정답 풀이>

인쇄 매체를 통해서도 내용이 널리 유통되도록 하여 지식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

<오답 풀이>

④ 음성 언어(말)은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하므로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가)~(다)와 같은 전자 매체는 이러한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

52. <답> ③

<정답 풀이>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가)는 거리두기 격상을 동의하는 입장이다. 한편 (나)는 표제에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모두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53. <답> ②

<정답 풀이>

매체에 따라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이 다르므로 매체의 형식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다)는 모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인터넷 기사이므로, 매체의 형식이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의 내용은 (가)~(다)를 통해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54~56] 매체

[지문 분석] (가)

(1) 스매시(smash)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타구하는 방법을 설명함.)

스매시는 높이 떠오르는 셔틀콕을 빠른 속도와 강한 힘으로 화살과 같이 상대방의 코트 면에 쳐서 넣는 타구이다. 배구의 스파이크와 마찬가지로 스매시는 배드민턴의 기술 중 가장 매력적이고 화려하며 공격적 파괴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주로 셔틀콕을 빠르게 낙하시켜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며 랠리의 결정구로 사용된다.

타구하는 방법은 속도를 신기 위해 백스윙을 시작하는 동작이

나 타구 후의 동작 등을 크게 해야 한다. 공격에 성공하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지만, 실수가 잦다는 것이 스매시의 단점이다. 또한 동작이 클수록 상대에게 공격이 임하기 쉽고, 타구 후에도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것이 비교적 늦어져 상대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매시는 강하고 빠른 속도로만 타구하려 하지 말고 날카로운 각도로 경기장 양쪽 구석을 향해 정확히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ㄱ. 스매시 공격 조건

스매시는 지능적인 작전을 잘하는 경기자가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체력의 소모를 적절히 조절할 것(과도한 스매시는 삼갈 것).
- 결정적 순간의 포착을 위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것.
- 수비자의 허술한 지점을 포착하여 공격할 것.

- 오성기 외, 『배드민턴 핸드북』에서

■ 핵심 정리

■ 갈래 : 책에 실린 글(설명문)

■ 주제 : 배드민턴 기술인 스매시에 대한 설명

■ 특징

-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지문 분석] (나)

무지개 님 블로그 | 이웃 블로그 | 바로 가기
프로필 ▶ 쪽지 ▶ 이웃 추가 ▶

<p>목록</p> <p>전체 보기(1222)</p> <p>나의 일상</p> <p>• 독서 감상</p> <p>• 영화 감상</p> <p>• 배드민턴</p> <p>• 일기장</p>	<p style="text-align: center;">스트로크 익히기: 스매시 편</p> <p>배드민턴 기술 중 다양한 스트로크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배드민턴 그림 잡는 방법은 링크를 누르세요. 배드민턴 그림 링크(핵심 정보와 연관성 있는 부가적 정보를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함.))</p> <p>배드민턴을 하는 사람이라면 멋진 스매시를 구사하고 싶어 합니다.</p> <p>스매시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체에 힘을 빼고 점프한 뒤, 라켓을 어깨 뒤로 뺀 후 백스윙을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충분히 해 준 후, 셔틀콕을 15도 정도 앞에서 타격해 주고, 손목을 최대한 이용하여 내리꽂는 느낌으로 칩니다.</p> <p>자세는 아래 동영상(동영상을 활용하여 스매시를 하는 자세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함.)을 참고주세요.</p>
--	---

국어 영역

1

고 3



댓글 12개 | 유인 글 | 글쓰기

[최최차차 |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실전에서 스매시 기술을 써 보려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 무지개 | 스매시는 네트에서 가깝고 높은 타점에서 내리칠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게시물에 포함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반복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소통함.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 드러남.)

■ 핵심 정리

- 갈래 : 블로그 글(설명문)
- 주제 : 배드민턴 기술인 스매시에 대한 설명
- 특징
 - 시청각 자료(영상)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댓글을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 드러남.

54. <답> ④
 <정답 풀이>
 (나)뿐만이 아니라 (가)에서도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55. <답> ②
 <정답 풀이>
 (가)의 매체는 책, (나)는 인터넷, <보기>는 텔레비전이며, 세 가지 매체의 정보 제공자의 범위는 '책 < 텔레비전 < 인터넷'이다.

56. <답> ②
 <정답 풀이>
 (가), (나) 모두 문자 언어를 활용하여 스매시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